금주의 기도

변화무쌍한 첨단 테크놀로지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크리스천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6-7절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8년 2월 3일 (토) **제 1668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선과 악 공존하는 세상...이해할 수 없어요!

바나리서치, Z세대가 교회 가지 않는 이유 설문조사 통해 밝혀

세대의 변화는 급속하게 다가온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는 것은 이미 옛말이다. 얼마 전까지도 신세대를 뜻하던 X, Y 세대는 이제 'Z세대'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다. Z세대는 누구인가. 단순히 X, Y의 다음 글자인 Z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세대는 때로는 I세대, 넷세대, 인터넷세대로 불린다. 이들은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중반에 태어난 세대로, 이전 세대인 Y 또는 밀레니엄의 다음 세대다.

Z세대의 특징은 월드와이드웹, 메신저, 문자, SNS, 휴대전화, 유튜브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와 함께 성장한 역사상 가장 '연결된' 세대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라고도 불리운다.

이들이 태어난 세계는 포스트모더니즘, 다문화주의, 세계화라는 새로운 물결이 불어 닥친 이후였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찾아내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생각을 교류한다. 전 세대와 달리 이들의 부모는 대부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집에 머물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자녀들의 과외활동을 돕는다. 그리고 세계적 불황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불안을 체득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이렇듯 이들의 삶은 이전 세대와 뚜렷이 구별된다. 신앙적 측면에서도 이전 세대와 다른 새로운 위기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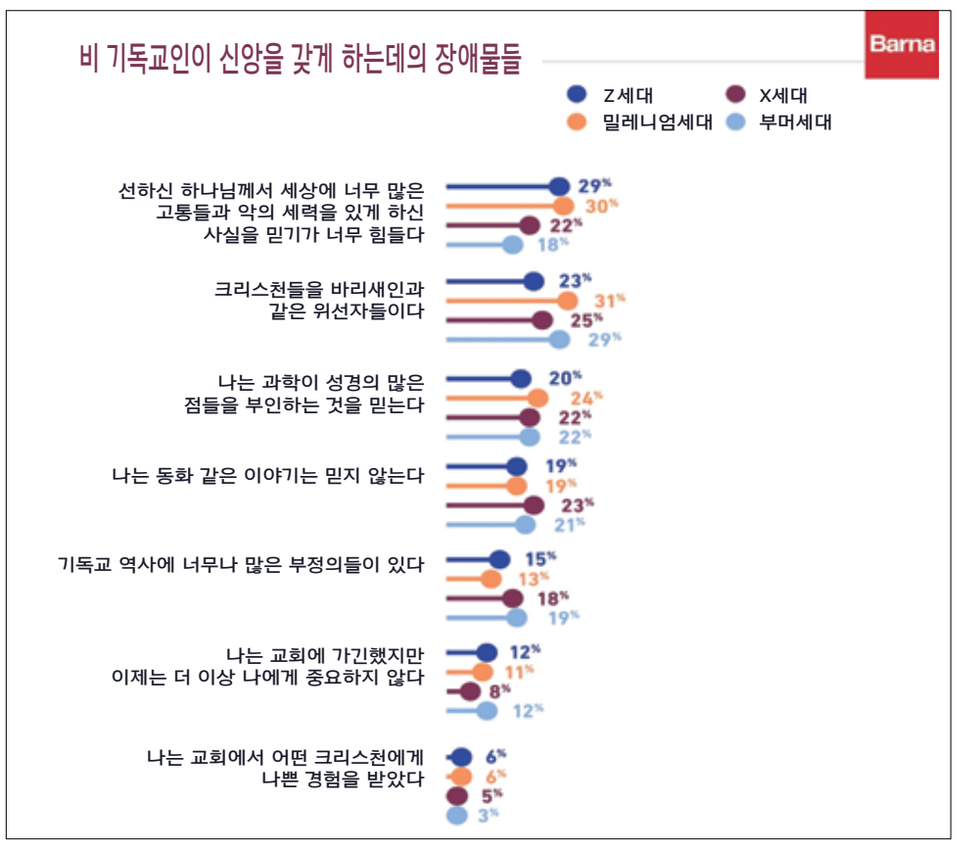
바나리서치는 Z세대에서 뚜렷하게 발견되는 어두운 징후를 말해준다. 바로 무신론자들이 증가 즉 교회와 담을 쌓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Atheism Doubles Among Generation Z).

Z세대는 1999년부터 2015년까지 태어난 아이들이다. 바나 리서치는 미 전역에서 13-15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소비자 패널 조사(2016년 11월)를 통해 1,490명을, 그리고 두 번째도 같은 방식으로(2017년 7월) 507명을 대상으로, 신앙에 관련된 설문들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무신론자"는 이들에게 있어 더 이상 피하거나 거리끼는 금지어가 아니었다. 한마디로, 이들 세대 이전 즉 어른들(6%)보다 두 배 정도(13%)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머 세대가 자신들이 크리스천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75%인 반면에, 이들은 59%에 머물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신앙을 등지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바나는 세대를 불문하고 비크리스천들에게 신앙을 갖게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Z세대는 유난히, 물론 모든 세대에게 공통적으로 방해가 되었던 문제, 즉 하나님을 믿는데도 악은 존재하고 고통을 겪게 되는 '신정론'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한마디로, 선하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과 악의 공존에 대해 충분하게 납득될 수 있는 설명이나 가르침을 찾는데 무진장 애쓰고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들은 모든 세대 불신자들이 지적하는 큰 장애물인 '크리스천들의 위선'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과의 만남이나 교회에서 나쁜 경험들을 했다는 사실들을 말해준다. 관련해서, 이들은 미국인들이 바라보는 신앙인들에 대한 시선 즉 "종교적인 사람들은 판단, 심판, 정죄를 잘한다"는 앵글에서 조금은 자유롭다(17% vs. 24%).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쟁점들 특별히 LGBTS 권리들, 가난과 이민 정책 등은 이들이 성인이 되고나서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 한다.



〈3면으로 계속〉

잠재력 제대로 발휘 못하는 목회자들 있다!

처치리더스.컴, 리더십리소스 K. 핼로란 목사의 10가지 유형 소개

종종 일찍이 능력을 발휘하다가 경력 초반에 사라진 유명 운동선수들이 있다. "그 사람은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도, 어떻게 성공을 못할 수 있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훈련이나 집중 등의 부족이 그들로 하여금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했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목회자들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타고난 재능이나 이전의 목회적 축복으로 목회 결승선에 골인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도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딤전3:3-7).

리더십리소스 케빈 핼로란(Kevin Halloran) 목사가 목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목회자를 다음과 같이 10가지 부류로 정리했다(10 Pastors Who Fail to Reach Their Ministry Potential). 여러분이 가진 목회적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참고하길 바란다.

1. 지나치게 미래지향적 목회자

항상 다음 목회 자리를 생각하거나 다른 역할을 꿈꾸고 있는가? 미래에 대한 갈망이 현재 주님이 주신 기회의 자리를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한다. 주님은 어떤 이유로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당신을 부르셨다. 풀은 항상 물을 준 자리가 가장 파랗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16:10).

2. 쉽게 화내는 목회자

목회자는 종종 힘든 상황과 어려운 사람들을 맞닥뜨리기 때문에 지치기 쉽다. 쉽게 분노하는 성향의 목회자에게 사람과 스트레스 요인은 위험하다.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짐작하기 어렵거나 감정적인 회중에게는 단 한순간이라 하더라도 화를 내는 것에 대한 변명이 절대 통하지 않곤 한다. 화를 표출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목회라는 환경에는 맞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독은...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딤전3:2).

3. 혼자 일처리 하는 목회자

목회자는 목회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다 책임을 져야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목회자는 목회의 여러 방향을 제어하려 하지 말고 성경적 목회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딤후2:2). 내가 운영하는 웹(www.leadershipresources.org)에는 주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가르치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잘 하도록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갖추었다. 예를 들어, "Fellowship of the Word" 프로그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량을 연마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목회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돕는데 자신감을 줄 수 있다.

〈5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2면 **시 론** 김풍운 목사

2면 **미국의 부끄러운 민낯, 부정 통한 자기보호**

7면 **중세교회 1000년** 조진모 목사

8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16면 **세계기독언론인협회 ...** 김진해 장로

평신도를 깨운다 Called to Awaken the Laity

국제 25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날짜 2018년 4월 30일 (월) - 2018년 5월 5일 (토)
장소 남가주사랑의교회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참가비 $450
- **사전등록 할인** $390 (2018년 3월 31일까지)
- **추가 특별 할인** 부부동반 / 풀타임 신학생 ($100 할인)

등록 마감 2018년 4월 7일 (토)
온라인 등록 http://dmi.sarang.com
* 모든 참가비는 식비, 숙박비, 등록비 및 공항픽업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목회의 새로운 문을 여는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dmmi@sarang.com 남가주사랑의교회 국제제자훈련원 T. 714 635 3000

시 론

노아의 간증

김풍운 목사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

몇 주 전 미주크리스천신문에서 지구 종말시간이 밤 11시 57분 30초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온 듯 한 느낌을 실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 직전 세상의 모습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한해만큼 가깝게 선 이 즈음에 노아의 간증을 생각해보며 우리들의 영적 현주소를 점검해보기 원합니다.

노아에 관한 기록(창6-9장)중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는 노아의 아름다운 모습을, 9장은 그의 부끄러운 모습을 소개합니다. 이 두 부분을 통하여 노아가 간증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높이세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의 때에 사람들의 생각하고 계획하는 바가 악하여서 하나님은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사 홍수로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롭고 흠이 없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창세기 6장 22절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었다고 소개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은 9절 이하에 나타난 노아의 아름다운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를 분명하게 증거 해줍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노아가 불의한 사람들 중에서 의롭게 살았고 그 당시 악인들 중에서 완전한(흠이 없는) 생활을 하였으며 방주를 지어 위대한 사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노아에게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의 경건한 제자가 깊이 기도하던 중 천국에 놓인 보좌들을 보았는데 그중에 가장 빛나는 보좌가 비어 있어서 누구의 자리일까 궁금하였답니다. 천사가 "그 자리는 높은 지위에 있던 천사의 자리였는데 교만하여 쫓겨났으며 하나님은 그 자리가 겸손한 프란시스의 자리라고 말씀하셨소"라고 답해 주었답니다. 신기하고 궁금하던 중 하루는 프란시스와 길을 가다가 "선생님은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고 그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했답니다. 제자는 "선생님은 진실하지 못하십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프란시스는 걸음을 멈추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저 악한 사람들에게 주셨다면 그들은 나보다 만 배는 더 예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했답니다.

우리들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신 결과입니다. 지구 종말의 시간이 더욱 가까워진 때에 어떤 자리에서든지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역자들과 교우들이 됩시다. 둘째는 "조심하세요"라고 말씀합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안정되었을 때, 그리고 말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어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방주 안에서 수많은 생명체들을 섬기며 수고할 때도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지나가고 방주에서 나온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농사가 잘되자 포도주를 즐기게 되었고 마침내 술에 만취하여 추태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자기를 업신여긴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하므로 그 아들이 대대로 비천하고 가난한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비웃은 함도 잘못이지만 자기를 비웃은 아들을 저주한 노아도 못지않게 잘못한 것이죠. 아마 자식이 저주받아 사는 모습을 보며 죽을 때까지 가슴이 너무 아팠을 것입니다. 노아는 그야말로 믿음의 거인인데 그가 말년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조심하세요"라고 강조하는 듯 합니다.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려고 조심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부끄러운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작고 약할 때는 조심하는데 강하고 커지면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 않아서 부끄러운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방문 중인 유명한 부흥사를 접대하러 식당에 갔는데 그 부흥사는 여종업원에게 반말로 명령하며 음식을 주문했답니다. 목사님은 당황하였고 종업원에게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목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 둘이 음식을 놓고 식사기도를 하면서도 그 종업원이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생각하니 너무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반면 글렌이라는 평신도는 함께 커피를 주문했다가 여종업원이 실수로 커피를 옷에 쏟아서 몹시 뜨거웠지만 너무 미안해하는 종업원에게 친절한 말로 위로하였고 매니저가 와서 사과하고 세탁비를 주겠다고 했지만 온유한 태도와 따뜻한 말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답니다. 유명한 부흥사는 교회 안에서는 좋아보였지만 교회 밖에서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이고 글렌이라는 평신도는 교회 안에서는 돋보이지 않았지만 교회 밖에서 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이라고 썼습니다.

예배와 사역에 열심인 우리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성장하게 된 우리들에게 들려준 노아의 간증을 매일 들으며 아름다운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한 해가 됩시다.

pwkim529@gmail.com

미국의 부끄러운 민낯, 부정 통한 자기보호

NYT, 이브람 X. 캔디 교수의 오피니언 기고 게재

대선 후보 때부터 "망언 발언들"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중미와 아프리카 국가를 '거지 소굴'(shithole)이라고 불러 파문이 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여야 의원 6명과 백악관에서 비자 추첨제도 쿼터를 엘살바도르나 아이티,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임시보호지위(TPS)를 이용했던 국가들에 돌리는 방안을 논의하다 "왜 우리가 거지 소굴에서 온 이민자를 받아야 하느냐"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왜 우리에게 아이티인들이 더 필요한 거냐"며 "그들을 내보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쓴 '시트홀'이란 단어는 어원을 따지면 항문을 뜻한다. 험한 말을 잘 쓰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그래도 도가 지나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아이티 이민 2세인 공화당 미아 러브 하원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은 불친절하고 분열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이며 우리나라 가치에 역행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비센테 폭스 전 멕시코 대통령은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시트홀'은 트럼프의 입"이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빈번하게 퍼부어지는 망언 피동에도,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인들은 트럼프를 지지한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인들이 부정을 통한 방어기제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이라고, 인종주의 연구에 정평이 난 이브람 X. 캔디(Ibram X. Kendi, 아메리칸 대학교) 교수는 뉴욕타임스 오피니언란을 통해 고발한다(The Heartbeat of Racism Is Denial).

"미국 인종주의 핵심은 '부정'" 지적...역대 대통령들도 인종주의 발언 남발

인종주의 부정하려 "법과 질서" "인종중립적" "오바마케어" 등 어휘 사용

현실이 너무 끔찍할 때 우리는 현실을 부정한다. 보기가 고통스럽고 받아들이기가 괴롭기 때문이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에 따르면, 부정은 가장 흔한 방어기제다. 우리는 현실 부정을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유지하기도 하고 사회의 인종차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도 한다.

부정은 미국이 세계 각지의 "쓰레기 국가"들로부터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그의 리버럴한 정적들의 마인드도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물론 "개발도상국"과 같은 단어로 돌려서 표현하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부정을 통한 자기 보호는 당파를 떠나 존재할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으로 미국 사회를 통합하고 있는 듯 보인다.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인종차별적 발언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그 자신은 더 강하게 인종주의자 혐의를 부인하고 정적들은 자기 속에 내재된 인종주의를 부인하며 트럼프에게 낙인을 찍기에 바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주의는 곧 미국의 인종주의다. 그의 추한 면에 대한 인식은 곧 우리 자신의 추한 면에 대한 자각이다. "나는 인종주의자가 아니다"라는 미국인들의 신조는 정당, 이념, 피부색,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문제가 된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던 자리에 동석했던 민주당 소속의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 리처드 더빈은 해당 발언이 "혐오로 가득 찬 인종주의적 발언이었다"며 "백악관 역사상 그 어떤 대통령도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트럼프의 인종주의가 특출 나게 나쁜 것인 것처럼, 그의 발언이 특별히 잔인했던 것처럼, 강조하는 과정에서 더빈 의원은 미국의 전형적인 자기 부정 마인드를 노출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백악관에서 살았던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도 인종주의자들이 있었을 정도로, 인종주의는 부정을 통해 미국사회에 독버섯처럼 기생했다. 먼저 사회진화론의 지지자 시어도어 루즈벨트와, KKK 미화 영화 "국가의 탄생"을 칭송했던 우드로우 윌슨이 있다. 인종문제에 있어 미국 사회의 진보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린든 존슨마저도 흑인에 대한 멸칭인 "니거(nigger)"라는 단어를 밥 먹듯 썼던 인물이다.

이렇듯 인종주의의 핵심은 바로 부정이다. 인종차별적 정책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는 사회에는 그 정책이 인종차별이 아니라는 주장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와 같은 부정의 양상은 시공을 초월한다.

나도 뉴욕 퀸즈의 인종차별에 대한 부정 속에서 자랐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과 멀지 않은 곳이지만, 그가 피해 다녔을 험한 동네, 그가 무시한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과 함께였다. 학교를 포함한 모든 곳에서 우리는 미국의 이상이 평등이라고 배우며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삶을 칭송하면서 자랐다.

그런데 50년 전, 리처드 닉슨은 이 부정의 정신을 정치철학으로 한 차원 발전시켰다. 그는 조지 월리스 류의 인종분리주의자들에게 어필하면서, 동시에 "위험한 흑인들"과 이웃으로 지내기를 거부하고 소수자 우대 정책에 반대하며 흑인 가정을 가부장적이라고 비판하고 흑인들의 문화를 비하하면서도 스스로를 꿈에도 인종주의자라고 여기지 않았던 미국의 수많은 유권자들의 지지에 힘입어 백악관에 입성했다.

닉슨 캠프의 한 고문은 잠재적인 지지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인종주의적 어필에 끌리고 있음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거 전략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종주의를 부인하기 위한 새로운 어휘들을 만들어 냈다. "법과 질서", "마약과의 전쟁", "모범적인 소수자", "역차별", "인종중립적", "개인의 책임", "흑인에 의한 흑인 대상 범죄", "불법 이민자", "오바마케어", "경찰의 목숨도 중요하다", "생명은 모두 소중하다", "권리 의식", "부정 투표" 등 다양한 표현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부정의 어휘를 사용하는 것은 보수뿐 만이 아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시카고 기독교방송국 부국장 청빙

미주 지역 한인들에게 방송을 통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며 시카고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는데 힘쓰고 있는 본 기독교방송국은 이제 개국40주년을 맞아 기도해 주시는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좀더 은혜스럽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편하여 복음 전파 사역에 전념하고자 아래와 같이 부국장을 청빙하고자합니다.

1. 자 격
- 정규 신학교 졸업후 목사안수 받으신분
- 이중언어 (한국어 영어) 구사 가능하신분
-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분
- 방송 선교에 사명을 가지신분

2. 제출 서류
- 이력서 와 본인 및 가족사진 1부
- 방송 선교의 중요성 1부
- 목사 안수및 최종 졸업(학위) 증명서
- 추천서 (2명 이상)
- 자기 소개서

3. 서류 제출 기간 • 2018년 2월 28일까지

4. 서류 제출처 E-mail: kcbsone@gmail.com
주 소 : 5817 W.Demspster St. Morton Grove IL 60053
전 화 : (847) 583-0191

5. 기 타 제출된 서류는 비밀 보장이되며 일절 반환치 않습니다.

문의는 시카고기독교 방송: 이사장 백송학 장로 (773) 844-5676
국 장 김순철 목사 (847) 208-9191

시카고기독교 방송

담임 목사 청빙

아래와 같이 공석중인 뉴욕 베데스다 교회 한어 회중 담임 목사를 모십니다.

1. 자격 요건
- 신학 대학원 (M. Div.)을 졸업하신 분.
- 목회 경력 5년이상 (부목사 경력포함)
- 미국체류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교단 Church of God (tennessee)에 가입하실수 있는분

2. 기본 제출 서류
1) 본인 및 사모 이력서와 6개월이내 가족 사진
2) 자기 소개서
3) 목회관
4) 최근 6개월내의 설교 file (2개 이상)
5) 최종 학력 기준으로 졸업 증명서
6) 소속 교단 발행 목사 안수 증명서
7) 추천서 2부(목회자), 추천인의 e mail 명기
8) 직무 수행을 위한 주치의 건강 소견서
9) 영주권이상, 여권 copy

3. 기타 서류 (추후 제출)
1) 목회자 대우 수락서
2) 공동의회 승인을 위한 약정서

4. 일 정 마감은 2018년 3월 말까지

모든 서류는 nybcoffice@gmail.com으로 보내 주세요.
서류 받는대로 자세한 교회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뉴욕 베데스다 교회
청빙 위원장 이의창 장로 cell 646 400 1252
서기 박환 장로 cell 917 742 7432
4239 208th st, Bayside, NY, 11361

선과 악 공존하는 세상...이해할 수 없어요!

〈1면에서 계속〉

이들은 또한 전형적인 '포스트-크리스천' 세대다. 기존 세대들(32%)에 비해 37%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고 응답했다. 같은 맥락에서, 기존 세대들 중 64%의 성인들이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54%만이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진리는 철저하게 상대적이며 어쩌면 알 수 없는 영역인 것이다. 바로 포스트모더니즘, 다문화준의라는 문화적 물결에서 어느새 상대주의에 흠뻑 젖어 들어버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종교들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지만 거기에는 '유일하고 오직 하나인 길'은 없다"라는 설문에 어른 세대들이 62% 그리고 십대들이 58% 동의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인 중 절반이 넘는 사람들에게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원의 길"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타인에게 진실이지만 나에게는 진실이 아니라는 상대적 가치관이 X세대에 급속도로 전이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긍정적인 사실도 있다. 바로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교회에 다니고 있는 10대들에게 교회는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측면이 설명되어지는 셈이다. 따라서 교회를 "답을 찾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끄는 장소"라는 설문에 82%가,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에 82%, "교회에서 나를 찾을 수 있다"에 77%라는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부정적인 견해들도 표출된다. 즉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과학이 설명하는 많은 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설문에 49%가, "교회는 10대들을 너무 보호하기에 바쁘다"에 38%,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위선자들"라는 물음에 36% 그리고 "교회는 내가 가진 의심들을 말하기에 안전하지 않다"에 27%, "교회에서 듣는 설교나 가르침이 너무 피상적이다"에 24%가 응답하고 있다.

결국 교회에 아직까지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10대들은 적다. 이들 중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문에 20%만이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공동체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10대들이 무려 80%에 이른다는 사실이 도출된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바로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들이나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크리스천 십대들 중 61%는 "나는 하나님을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다"라고 응답하지만, 십대 불신자 중 64%는 "교회는 개인적으로 나에게 중요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응답한다. 그러나 한 가지 눈여겨봐야할 설문 결과가 있다. 교회에 다니는 십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어쩌면 교회의 아킬레스 힐이다. 십대들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교회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결론으로, Z세대, 그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한마디로 어둡다. 찰나의 소비 세대, 찰나의 마케팅 시대에 그들은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한번 클릭으로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진리가 하나라고 믿지 않는 세대다. 그런데 이들이 밀려오고 있다. 미국의 인구 통계를 참고하면 2015년에 전체 인구 중 Z세대의 비중이 22%에 이르고, 향후 2020년까지 30% 이상까지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X세대에 대한 사역 준비는 이민교회인 한인교회에서 어쩌면 EM으로 떠넘겨질 수 있다. 언어와 문화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KM 역시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Z세대를 섬길 준비를 갈이해야한다.

디지털 기술의 토착민(natives)들인 Z세대는 영적 접촉을 원하는 순례자(pilgrim)들이다. 하나님의 숨결, 부모의 손길, 친구의 체온이 필요한 이들에게 교회는 더욱 깊은 기도의 영성과, 말씀을 통한 진리에 대한 확신, 나를 넘어 이웃을 섬기는 봉사와 헌신의 삶을 가르치고 그 본이 돼야 한다. 이제 우리에게 Z세대가 다가온다.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기대하면서 그들을 준비하자.

〈2면에서 계속〉

흑인들이 불안정한 가정 및 범죄 문화의 악순환 속에 갇혀있고 빈곤과 차별이 나쁜 사람들을 만들어낸다고 믿는 백인 리버럴들도 자신의 인종주의를 부정하기 위해 이런 어휘를 사용하곤 했다.

트럼프는 멕시코인들을 범죄자, 강간범으로 낙인찍으며 인종차별로 대선전의 막을 열었다. 당선 후에도 폭력적인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매우 괜찮은 사람들"로 부르거나, 나이지리아인을 "오두막"에 사는 사람들로 칭하는 등 수많은 어록을 남겼다.

이처럼 명백한 근거를 들이대도, 트럼프 대통령은 끊임없이 이를 부인한다. "내가 당신이 만나본 사람 중 인종주의자와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일 것"이라면서, 자신을 두둔하기에 바쁘기만 하다.

참으로 추한 부정의 말들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대척점에 서 있으면서도 자신의 인종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더 큰 좌절감을 느낀다. 그들은 정체성 정치에 대한 자신들의 공격은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부정하며, 엘리트계에 비 백인이 별로 없는 것 자체가 인종차별이라는 것을 부정하곤 하기 때문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 역시 1963년 버밍햄 교도소에 앉아 "선의를 가진 사람들의 얄팍한 이해가 악의를 가진 사람들의 절대적인 오해보다 훨씬 더 큰 좌절감을 준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무덤에 가는 순간까지 자신이 악의적인 인종주의자임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트럼프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추악함을 외면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종차별로 얼룩진 현실을 외면한 채, 나 자신, 우리 사회에 대해 아름다운 환상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바로 부정이라는 무기로, 현실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인종주의자에게 찍히는 낙인은 이와 같은 부정의 정신을 더욱 부추긴다. "인종주의자"가 하나의 정체성이나 브랜드처럼 여겨지는 현실이 이러한 낙인 효과를 강화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인종주의자라는 말에는 어폐가 있다.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나 하는 행동이 인종주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인종주의자"는 "인종주의자 아님"과 같이 고정된 어떤 카테고리가 아니다. 자신이 인종주의자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는 건 인종주의자들뿐이다. 인종주의의 핵심이 부정의 정신이라면, 반(反)인종주의의 핵심은 고백의 정신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에서 매우 찾기 힘든 부류라는 점이, 더욱 안타까울 뿐이다.

소망 칼럼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이시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야 한다. 그래야 이 다음에 후회가 없다.

뉴욕의 차이나타운에서 있었던 일이다. 미국인 여자가 한 가게에 들어서더니 행운의 부적을 보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여주인은 의아하다는 듯이 손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미국인은 여주인에게 말했다. "정말 효력을 발휘하는 부적이 필요해요. 다름 아니라 우리 아들애가 배를 타고 남태평양에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애를 보호해줄 만한 것을 찾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 말을 다 듣고 난 가게 여주인이 웃으며 입을 열었다. "부인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긴 한데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제발 부탁이니 그것을 보여 주십시오. 가격이 얼마든지 간에 제가 꼭 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내게 있어 하나님만큼 확실하고 효과적인 보호자는 없답니다. 내게는 아들이 세 명 그리고 손자가 세 명 있는데 그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맡겼지요. 그러고는 하나님께 잘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응답해주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인, 하나님만이 진정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부인께서도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시도록 진심으로 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시다. 시편 23:4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 우리보다 늘 앞서 행하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 인도하셨음을 믿고 감사하기 바란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시편 128:1-3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잘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라고 하였다. 특히 시편 128:5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라고 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교회의 상징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시는 아버지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여 각별한 보호와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인도해 주시면서 실족할 위험이 있는 험난한 길과 절벽이나 험준한 산길 혹은 강물을 건널 때에는 우리를 품에 안고 목적지를 향해 가신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는 데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이 함께 하셨음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란다. 우리가 인생길, 험한 길, 위험한 길 가게 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붙잡아주고 이끌어주실 줄 믿기 바란다.

nammicj@hanmail.net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칠천인(2)

-츠빙글리(Ulrich Zwingli, 1484-1531)

취리히 공항 근처에 잡은 호텔에서 위대한 개혁자 츠빙글리가 사역한 교회와 그가 태어난 집을 찾아가는 길은 오로지 내비게이션을 의지해야 했다.

해당국가의 언어를 구사할 수 없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다. 그래도 구라파에서 오랫동안 산 경험이 있기에 걱정은 하지 않았다. 비슷한 환경에서의 오랜 경험은 난관을 벗어나는 일에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점은 이 길을 수차례나 지나갔고 여러 번 이곳을 방문하였으나 취리히가 그저 구라파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 하나로만 여기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성경의 지명에 대한 애착이 가는 것처럼, 어떤 대상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법이다. 위대한 개혁자가 사역했던 현장임을 진즉 알았더라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감이 일어났다.

그가 사역했던 교회는 아담했다. 마침 교회 부속실에서 커피타임을 하던 사람들 중에 남자 두 분이 우리가 교회를 보기 원한다고 하니 친절하게 안내했다. 말끔하게 단장한 교회인데, 현재 출석 성도가 300명이라고 한다. 놀랍다. 구라파 대부분의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처럼 살아있는 교회도 있으니 말이다. 아마도 오백여 년 전에 복음의 참 씨를 뿌린 츠빙글리의 영향력이 지금껏 역사한다 싶다.

강단에 올라가 사진도 찍었다. 일찍이 츠빙글리가 설교자로 섰던 곳이다. 또한 강단 옆에 아주 크고 아름다운 오르간이 있는데 안내하던 분이 연주를 하여 우리를 감동케 했다. 놀라운 음향이었다. 츠빙글리는 오르간도 가톨릭의 잔재로 여겨 칸으로 막았는데 세월과 함께 수용하게 되었나 보다.

안내하는 분의 연주가 끝나자 어느새 동행한 사모님이 오르간 의자에 앉아 귀에 익숙한 찬송을 연주했고 우리도 따라 불렀다. 사모님은 피아노 전공으로 지금은 오르간을 배우고 있는데 한 번도 연주를 해보지 못했다고 한다. 안내하던 분은 엄지를 세우고 아주 좋다고 칭찬한다.

츠빙글리가 사역한 교회를 살펴본 후에 그의 생가를 향해 떠났다.

츠빙글리가 사역한 교회만 보아도 감사할 일인데, 그가 태어난 곳을 방문한다니 이 무슨 축복인가 싶다. 스위스의 아름다운 시골길을 달렸다.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대대로 목축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츠빙글리가 살았던 15세기에도 비슷했을 것이다. 위치와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았으니 말이다.

찾아가는 길 양쪽이 큰 산으로 펼쳐져있고, 좁은 계곡을 통과해야 했다. 이 길을 계속 가면 뮨헨에 이르게 된다고 길표는 말해주고 있다. 몇 시간을 달려 지루함을 느끼려는 때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의 생가는 국도에서 50여 미터 들어간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주변은 모두 현대식 건물로 탈바꿈하고 있었지만 그가 태어난 집은 옛날 그대로 나무로만 지어진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맞이했다. 문에는 작은 안내문이 걸려 있는데 전화번호와 함께 미리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하고 와야 내부를 볼 수 있다고 쓰여 있었다.

그래도 무시하고(한국인의 용감함?) 기록된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자신은 타 지역에 있기에 갈 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에 올 때는 예약을 하라고 한다. 아쉬웠으나 이곳까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했다.

앞산은 10월인데도 흰 눈이 있다. 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아름다운 마을이다. 이런 아름다운 목가적 마을에서 위대한 개혁자 울리히 츠빙글리가 태어났다.

그는 아버지가 귀족이요, 넉넉한 가정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가 탄생한 마을의 집을 보면 겨우 25-30여 평 되는 크지 않은 집이고, 마을이라야 드문 드문 주택이 있는 한적한 시골마을이다. 현재도 그러니 500여 년 전에야 얼마나 인적이 드문 깊은 시골 마을이었을까 싶다.

그는 1484년 1월 1일, 태어났다. 아버지가 마을의 행정 장관이었고, 아저씨가 베젠의 참사회장으로 있었기에 그의 도움으로 바젤과 베른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바젤에서 인문주의자인 토마스 비텐바하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에게서 성서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 용서의 유일한 대가요, 면죄부의 무익함을 배웠다. 고로 그는 자연스레 인문주의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1506년 가톨릭의 사제가 되었고 10년 동안 성직자의 길을 걸으며 성경 원어를 공부했다. 또한 이때 인문 학자이자 성직자인 에라스무스와 깊은 우정을 나누었다. 그런데 에라스무스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대속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마련하신 교육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츠빙글리는 글라루스 파견대의 군종 장교로 세 차례에 걸쳐 이탈리아 원정에 참여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스위스의 용병 제도가 사람을 부패하게 함을 경험하게 되었다. 당시 스위스 자치주들은 많은 돈을 지불하는 곳으로 용병을 보냈다. 고로 용병은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고향에 돌아와서는 번 돈을 방탕하는데 허비하곤 했다. 고로 츠빙글리는 팔을 걷어붙이고 용병의 부당함을 직설적으로 호소했다.

츠빙글리가 개혁에 나서게 된 것은 1519년 전염병으로 죽다 살아난 경험을 통해 사명을 느끼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1520년 사랑하는 동생과의 사별을 통해 한층 더 바른 진리에 대한 갈망이 타오르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에 충실하려고 했다. 그래서 가톨릭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성찬에서 평신도에게 잔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과, 성직자의 결혼하지 않는 일, 그리고 연옥이나 교황 무오 설에 대하여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고 했다. 이런 일로 로마 가톨릭교회와 갈등을 겪게 되자 공개토론을 제의했고 시 의회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허락했다.

가톨릭 측에서는 콘스탄츠 주교가 파송한 파베르 박사와 여러 명의 사제들이 참석했다. 그런데 회중의 한 사람이 교황의 특사에게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데 왜 결혼한 사제를 감옥에 보내야 하느냐고 하자 성경에 있다고 했다.

그러자 츠빙글리는 성경 어디에 또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대답해 달라고 질문하자 어물어물했고, 결국 토론회는 츠빙글리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다. 이 결과, 취리히 시는 츠빙글리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혁을 시도했다.

시의회는 츠빙글리와 그의 설교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취리히의 영향권 내에 있는 사제들에게도 츠빙글리의 가르침을 따르되 성경에 근거한 것만 설교하도록 명했다. 고로 이제껏 금기했던 가톨릭의 제도를 개혁하기 시작했다.

이런 일은 참으로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닐 수 없었다. 저들은 일제히 교회의 성상과 유물을 제거했고, 미사도 폐지했다. 주교의 사법권을 폐기했고, 설교는 청중이 들을 수 있는 독일어로 시행했다. 모든 성도가 성찬에서 떡과 잔에 참여하도록 했고, 성서만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성직자의 결혼을 허락했다.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전통을 끊어버리는 대단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츠빙글리의 전면적 개혁은 많은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교리적인 면보다도 용병 반대, 숙박업 반대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 상인과 용병으로 인한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개혁에 반대하던 자치주들은 가톨릭과 연대하여 전쟁을 일으켰고 미처 준비되지 못한 취리히는 카펠 전투에서 대패하고 말았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츠빙글리도 죽었는데 개혁을 반대한 무리들은 그의 시체를 조각내어 불태우고 그 재를 공중에 뿌렸다. 그는 개혁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숨을 거두며 이런 말을 남겼다. "그들은 몸을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을 죽일 수는 없다." 그의 몸은 개신교도들의 성자 유골로 수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분해되어 불에 태워졌다.

츠빙글리는 개혁 교회의 용감한 지도자였다. 요한 칼빈보다 25년이나 앞서 태어났다. 그는 어느 개혁자보다도 교회의 개혁을 시도한 사람이다. 츠빙글리는 취리히 시가 정치적으로 신본 정치로 이행하게 되기를 소원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신정정치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때는 없었다.

14세기 피렌체의 사보나롤라는 메디치의 지도자가 도망간 빈자리를 차고 들어가 신정정치를 도모하려 했지만 그 기간은 일년도 채울 수 없었고 저들의 서슬 퍼런 배신에 화형을 당하고 말았다. 그뿐일까? 종종 이 땅에서 신정정치를 도모하려는 경우가 있었으나 모두 실패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로 어떤 인생도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 나라는 우리가 장차 가야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모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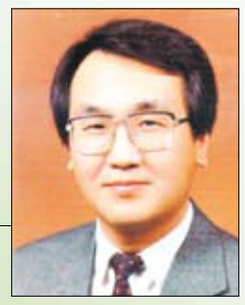
츠빙글리가 가톨릭을 따르는 동족과의 전쟁에 나섰다가 죽은 사건에 대해 루터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평가절하 했다. 루터와 성찬의 떡에 대한 불화는 대단했다. 루터는 츠빙글리와 그의 지지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고, 츠빙글리는 루터는 로마의 대변자 요한 엑크보다 더 나쁘다고 주장했다.

츠빙글리는 루터보다 인문주의적인 관점이 있었지만 그도 하나님의 탁월한 지도자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그의 동상은 한 손에 칼을 또 한손에 성서를 들고 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려는 그의 간절함이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자들을 일으키심을 우리는 츠빙글리를 통해 배우게 된다. 고로 다름이 있더라도 이해하고 용납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다.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박상훈 목사
(승동교회)

"사랑을 인하여"

(빌레몬서 1장 8-14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을 다 떠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맺힌 것은 다 풀어버리고 가야지, 미결 인생으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맺힌 것은 속히 풀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 죽어가는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했던 나의 오네시모도 죽어가고 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내가 상처를 주고 내가 마땅히 용서받아야 할 나의 빌레몬도 사실은 죽어가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후면 육신의 장막을 벗고서 하나님 앞에 다 서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억울한 일이 무엇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빌레몬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여섯 가지로 칭찬했습니다(8절). 첫째, 그에게는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둘째,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셋째, 그에게는 믿음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넷째, 그는 선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섯째,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섯째, 그는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빌레몬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그의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에게 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렇게 명했더라도 빌레몬은 바울의 명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9절).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 앞에서 간구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사랑은 교만치 않습니다. 사랑은 겸손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지극히 사랑했기에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빌레몬을 지극히 사랑했기에 빌레몬도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의 마음에 있는 사랑에 호소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을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9절하).

자기는 지금 늙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빌레몬의 눈에서는 절로 눈시울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에게 있어 사도 바울은 그의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바울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의 은인이 나이도 많은 가운데 평안히 거하지 못하고 지금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고생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속에서 절로 동정심이 끓어올랐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청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절해서는 안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10절). 오네시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교도소는 무료입니다. 먹여주고 재워줍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돈을 주고 셋집에 유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특혜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는 감금된 상태입니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 오네시모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자기 주인 빌레몬을 통해서 이미 바울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해서 오네시모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그가 오네시모를 낳았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오네시모는 비천한 노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자기의 아들이라고 애정 어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은 빌레몬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하게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네시모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11절).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전에는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무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공교롭게도 "useful," 곧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전에는 자기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빌레몬은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좋은 주인이었습니다. 그가 까닭 없이 자기의 종 오네시모를 학대하고 괴롭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는 자기의 훌륭한 주인을 배신했습니다. 돈을 훔쳐 달아나 버렸습니다. 오네시모는 손해를 끼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곁에서 충성스럽게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믿어주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하나의 종으로서가 아니고,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유익을 주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네게 저를 돌려보내노니"(121절).

물론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법적으로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빌레몬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기 위해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내 심복이라"고 했습니다. 마음 심(心)자, 배 복(腹)자입니다. "오네시모가 나의 심장과 같이 나의 내장과 같이 나를 충성스럽게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너에게도 심복이 되어서 충성스럽게 잘 섬길 것이다!" 라고 칭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인관계는 어떻습니까?

셋째로, 바울은 선한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그 자체가 사랑이 되지는 않습니다. 억지로 아니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의로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바울에게는 하나의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13절).

지금 바울은 나이가 많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만일 빌레몬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기꺼이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뒷바라지를 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대신해서 지금 바울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섬기고 있는 것은 따지고 보면 그의 주인 빌레몬을 대신하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빌레몬은 그 소식을 듣더라도 기뻐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 대신에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머물러 두어 복음을 위해서 시중들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심복같이 충성스럽게 잘 섬기고 있는 오네시모를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14절).

빌레몬이 그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선한 일이 억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한 일이 자의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결코 강요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내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나와 너와의 관계를 늘 아름답게 맺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스메이커(Peacemaker)로서 화평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쥐엄 열매와 사람답게 사는 것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오직 회복

인생의 절망을 말할 때, 탕자비유에 언급된 쥐엄 열매 먹는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재산을 취하여 허랑방탕하게 사용해 버렸다. 완전히 탕진을 하자마자,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찾아왔다. 돈도 떨어지고, 신발, 양복 다 떨어져서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돼지를 치는 이방인을 찾아간다. 먹을 것이 적당치 않으니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 데 그것조차도 용이하지 않게 된다. 사람답게 살지 못할 형편에 내어 몰린 것이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인생으로 떨어져 나갔음을 말한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왜 힘들게 사는가? 왜 사람답게 못하며 사는가? 사람답다는 말은 무엇인가? 사람답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갖추고 있던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사람답게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죄인이 된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사람답게 살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복되어 사는 것'외에는 달리 길이 없음을 본다.

탕자는 어떻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구하는 신세가 되었는가? 지금도 보면, 사람답게 못사는 사람들이 많음을 본다. 미완성에서 완성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서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말 문제는 지금 쥐엄 열매를 먹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숙명의 탓, 혹은 득도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쥐엄 열매 먹는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자기위로의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사람이 아버지를 떠나 쥐엄 열매를 먹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가지 못한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믿고 싶은 만큼 믿고, 하나님을 자기 이해 속에 가두어두고 자신의 삶을 설명하려하기 때문이다.

타락하여 만족 없는 삶

쥐엄 열매가 무엇인가? 쥐엄 열매는 나무에서 얻는 열매이다. 쥐엄 열매는, 쉽게 말해서 아카시아 나무과에 속해있는 나무이다. 그래서 나무가 보통 큰 나무에서 길게 열매처럼 달리는 것인데, 소, 개, 돼지 밥을 줄 때, 그것을 함께 먹인다. 원래 돼지는 깨끗한 풀을 먹고 살았다. 깨끗한 것을 좋아한다. 그런데 갇혀 살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더러워진 채 살아간다는 것이다.

사람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더러운 대로 더럽게 사는 것을 본다. 돼지도 원래 깨끗한 것을 좋아하지만 치울 줄을 모른다. 산돼지는 더러우면 옮겨가서 사는데 집돼지는 옮겨 살 수 없으니까 신경질 나서 자기 대소변위에 굴러 버려 더러워졌다는 것이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을 보면 돼지처럼 지저분하고 더럽다. 스트레스로 가득한 삶에 아무런 만족이 없다. 사람다움에 대해 포기하고 쥐엄 열매를 먹는 짐승처럼 인생의 존귀한 형상들을 내려놓고 살아간다.

부자집 아들이 어쩌다가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게 되었을까? 이유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타락하면, 그 증거가 음식에서 나타난다. 사람이 타락하면 술 담배 마약 등의 인생의 가치를 포기하는 제일 더러운 음식을 좋아하게 된다. 음식을 보면 사람과 그 시대가 타락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사람이 타락하면, 음식 문화부터 알 수 있다.

성경에 에스더서를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127개의 주를 손에 쥐고 잔치를 매일 벌였음을 본다. 나라도 통일했고, 주변 나라를 빼앗았으니 그 권세가 막강했을 것이다. 그러니 매일 술타령하고 먹고 마셨던 것이다. 그렇게 술파티를 하면서 왕이 즐기고 있는데 왕비 와스디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이다. 아마도 왕비 와스디는 그 저질 문화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왕의 참모들이 와스디를 이 자리에 불러내라고 부탁한다. 문화가 더러워지면 그 자체를 이끌어가는 인간들이 이미 타락했음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와스디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것을 왕의 말을 거역했다는 이유를 들어 왕비 와스디를 내어 쫓아 버리게 된다.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을 보면, 사람과 그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이 함께 타락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음을 알게 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이 거룩할 수 있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녀들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이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 알코올이 들어가고, 연기와 마약, 지저분한 것들이 들어가면 그 입과 생각 속에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먹는 음식의 문화가 가정 문화를 대변함을 기억해야 한다. 식탁예절이 중요하다. 엉터리같이 먹지 않아야 한다.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아무것이나 냉장고에서 꺼내 먹고 가라는 가정의 아이들이 가지는 스트레스는 반드시 정크 푸드로 인격을 버리게 할 것이다. 돈이 있고 배운 사람들은 음식을 가려 먹기 때문에 건강하다. 그런데, 돼지처럼 먹기만 하면 생각도 자세도 모든 것이 썩어가게 됨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면 안된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돼지들이나 우상들이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돼지가 먹는 열매, 음식을 내가 먹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갈등을 해야 한다. 그런 갈등 속에서 인생을 살아야 한다.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 음식을 먹는 예절을 가르쳐야 한다. 그것이 신앙의 선진의식이다.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지 않는가? 세상에 밥을 먹지 못하면 기근이 찾아오면 길거리에서 음식을 주워 먹게 된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매일 먹고 있는 것에서부터 감사해야 한다. 한 여인은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그 결과는 회복이다.

집안의 음식 문화를 바꾸고 사람답게 먹고 드셔야 한다. 뭔가 갖추어서 먹으려고 하고, 음식을 준비해주면 감사하고 아름답게 먹어야 한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춤을 출 수 있어야 한다. 먹는 것이 없어지면 사람이 비굴해진다. 먹을 것이 없으면 훔치고, 폭행하고 도적질하게 된다. 그래서 공산당이 오늘까지 사회주의를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먹을 것이 그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을 보라. 기아로 굶어죽는 아이들이 셀 수가 없다. 총칼로 눌러 놓았기 때문에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오래 지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쥐엄 열매를 먹지 말라

먹고 사는 것 속에 돼지처럼 쥐엄 열매를 먹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 레위기와 모세 오경을 보면, 하나님이 조목조목 정하셔서 기록해 놓으셨다. 그것을 먹느냐, 마느냐는 것을 떠나서 부분적인 허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쥐엄 열매가 돼지가 먹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먹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쥐엄 열매를 제시한다.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고 말했다. 돌멩이가 무엇인가? 돌멩이이다. 돌멩이는 떡으로 변했다고 해도 돌멩이일 뿐이다. 돌멩이를 만들어서 떡으로 만들었어도 그것은 돌이 본질이다. 그런데 마귀가 돌을 예수님께 가져왔다. 예수님은 그 말에 속지 않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떡을 만들 수 있으신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돌을 만들었고, 떡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까지 깨가면서 피조물에게 들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신 것이다. 사람은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살라고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쥐엄 열매는 안 먹겠다는 것이다.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라

예전에 군대를 가면 고참들이 때린다. 술을 안 마신다고 때리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다들 술을 마시는데 맞아도 끝까지 먹지 않는 아이가 있다. 그런 아이는 그 뒤로 사람들은 찍혔다고 말하겠지만 그는 은혜의 승리자가 되어 쥐엄 열매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술좌석에 불려가도 노래를 시키면 '나 같은 죄인'을 부른다. 그 다음부터는 그를 분위기 망친다고 초대하지 않게 된다. 그것이 그에게는 즐거움이요, 예수 믿는 기쁨이다. 구태여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까지 세상의 질서를 따를 이유는 없다.

말씀을 양식하여 살아가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엄청나다.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성령이 만져주시니까 되는 것이다. 세상에 찍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고정 관념을 만들어 놓으면 너무 편하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쟁이들은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게 되는 것이다.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들인가? 결국은 쥐엄 열매를 끊지 못하고 계속 먹어야 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결코 바른 방향이 아니다.

술 마시는 것이 뭐가 어렵겠는가? 삼키고 넣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마실 수 있지만 참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에,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사상의 절대화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신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는 것이다. 쥐엄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이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축복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고생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게 하나님은 결과를 주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결단코 쥐엄 열매를 먹지 말고, 말씀이 육신 되어서 오신 그분을 먹어야 한다. 그분의 몸을 먹어야 한다. 그가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 그분을 먹지 않는 자는 정녕 죽을 것이다.

davidnjeon@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어떤 목사님의 계시록 설교를 들었는데 예수님의 재림 전에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무서운 환난시대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그동안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목사님들로부터 거의 듣지 못했는데 보다 자세히 성경구절을 통해 알고 싶습니다.

-토랜스에서 김 권사

A: 과거 다미선교회가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다고 선동하여 일반 뉴스와 미디어에서는 그 사실을 보도하고 안 믿는 불신자들도 혹시나 싶어서 군대에서는 군인들이 예수 믿는 사병들 팔다리에 자신을 묶고 잠드는 괴이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오실 것이니 집이며 재산은 필요 없다고 신도들을 미혹한 뒤 그것을 바치게 하는 이중 사기 행각을 벌여 해프닝으로 끝난 적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종말론 이단을 기독교의 일부로 오해하여 반 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영으로나 말로나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을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

그리스도 재림 전 적그리스도 등장...순교적 신앙 필요

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반드시 불법의 사람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계시록 8장 13절을 읽어보면 넷째 나팔을 분 후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을 것이라고 3가지 화를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계시록 9장 1-11절에 나오는 영적 정신적 재앙인 황충의 해를 말합니다. 이 황충의 해는 김승곤 목사님의 계시록 강해를 보면 각종 인본주의 악 사상들이라고 말합니다. 무신론, 진화론, 실용주의, 인권주의, 다원주의, 동성애 사상 등입니다.

두 번째 화는 계시록 9장 13-21절에 나오는 여섯 째 천사의 나팔이 불어질 때 일어나는 유브라데강 전쟁입니다. 이것은 인류 1/3이 죽는 제 3차 대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유브라데강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은 다른 것입니다 유브라데강 전쟁은 여기서 나오는 전쟁 양상을 보면 사람을 대량 살상하는 비대칭무기라 할 수 있는 핵이나 생화학무기가 동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유브라데강 전쟁은 교회가 두 증인, 두 촛대로서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계시록 11장의 1260일이 끝날 때 쯤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계11:7).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계11:7).

유브라데강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니엘서가 말하는 미운 물건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패권을 잡은 자가 적그리스도로 등장하여 정치, 경제, 종교를 통합하여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계13:7). 이후로 교회는 무서운 환난과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 그는 미운 물건으로 모든 예배를 폐지할 것이며 계시록 13장 14-18절을 보면 그는 자기를 닮은 우상을 만들어 사람들로 강제로 경배케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잔인한 살상을 가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절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순교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잠재력 제대로 발휘 못하는 목회자들 있다!

〈1면에서 계속〉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1-12).

4. 순종하지 않는 목회자

때로 담임목사의 목회 비전보다 자신의 비전을 더 선호해 권위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태도는 교회에서 분열을 낳고, 다른 사람이 담임목사의 비전을 무시하게 할 수 있다. 목회자는 자신의 양떼 앞에서 예수님처럼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부름 받은 자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히13:17).

5. 돈을 사랑하는 목회자

돈은 성과 권력과 더불어 사탄이 종종 목회자를 넘어뜨릴 때 가장 잘 쓰는 3가지 죄 가운데 하나다. 재정적인 유혹은 늘 넘쳐나서 개인적인 용도로 교회 자금에 손을 대는 것부터 도박까지 그 형태도 다양하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경계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딤전 3:3).

6. 행복하지 않은 목회자

이런 유형의 목회자는 삶과 목회를 반 잔 밖에 남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본다. 목회자는 목회적 삶과 감정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부족하면 가장 큰 무기를 잃을 수 있고(느8:10), 양떼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일으키는 것이 힘들 수 있다. 행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권능의 뿌리 깊은 견해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빌4:4).

7. 특정한 화제에 빠져있는 목회자

특정한 기독교적 주제나 교리에 대한 관심은 그것이 목회자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목회자는 좋아하는 화제를 좇으려는 충동을 자제하고 목양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성경을 사람들에게 충실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2: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딤후4:2).

8. 신체적 접촉의 경계선이 느슨한 목회자

최근 목회자는 그 어느 때보다 신체적 접촉과 관련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제대로 구분된 경계선이나 안전망이 없으면 목회지에서 나오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적 스캔들 같은 낌새를 일으킬 만한 일이나 오해를 일으킬 만한 행동과 신체적 접촉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엡5:3).

〈16면으로 계속〉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북한의 한족(Han Chinese)

중국 본토 전체 인구의 대다수는 한족, 또는 만다린 중국인들이다. 그들의 언어는 쿠유어(Kuoyo, 만다린어)이며, 이 쿠유어는 중국-티벳어계(Sino-Tibetan language)에 속하는 중국어의 한 종류이다. 한족은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중국 본토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했다. 그래서 현재 그들은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 살게 됐다.

북한에 살고 있는 한족의 경우 그 수는 약 17만명 정도지만, 이는 북한 전체 인구의 1%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북한 전체 영토의 4/5 정도는 산악지대이며 이 지대를 제외한 농업과 산업이 가능한 나머지 땅에서 북한의 전체 인구가 살고 있다. 기후는 겨울의 차가운 시베리아 대륙풍만 제외하면 뉴잉글랜드 지역의 기후와 유사하다. 사슴, 영양, 야생 비둘기, 호랑이와 같은 야생동물들도 서식하고 있다. 북한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대부분의 한족은 자신들의 중국 유산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한국문화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했다.

삶의 모습

세계 2차 대전 이후 북한은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변화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전력공급이 충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산업화를 추진하던 때, 북한의 많은 한족들이 산업도시들로 이주해왔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지역산업으로 꼽을 수 있는 3가지 분야는 강철과 철의 생산을 포함한 철강산업, 산업 및 농기계 산업, 방직업이다.

북한에서 철도는 도시간의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여겨진다. 반면 자동차는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속도로는 교통수단 발달을 위해 그리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어서, 실제 도로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포장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현재 북한 주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은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다.

1950년에 한족의 결혼은 반드시 중매혼이 될 필요는 없다는 내용의 만다린 법이 통과됐다. 또한 이 법의 통과로 인해 신부를 사기 위한 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여자들도 이혼을 정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허락됐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 한족사회에 있어서도 사랑을 기초로 한 결혼이 이상적인 결혼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결혼은 법적으로 허락되지 않는다. 신혼부부의 경우, 신부의 가족이나 신랑의 가족이나 어느 쪽이든지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한족에게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학교 공부를 잘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으로 인식하며 방과후 시간에도 공부할 시간을 갖는다. 2000년 넘게 한족들은 체액균형(humoral balance) 이론을 발전시켜왔는데, 이 이론은 신체 안에 있는 피, 점액, 담즙, 흑담즙이라는 네 가지 액체들의 균형에 대한 것이다. 치료를 위해 침이나 자침으로 자극하는 것은 이러한 이론의 결과다. 오늘날 침법은 미국을 포함한 많은 서구 나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침 치료는 질병을 예방하거나 조절하고 고통을 덜어주며 수면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에 있는 대부분의 한족들은 자신들만의 중국 토속 전통을 그대로 유지해왔다. 즉, 가족 간의 강한 유대관계를 중시하며, 중국에서 한 가정 한 자녀를 선호하는 경향과는 반대로 한족사회에서는 자녀들의 출산을 환영하고 있다. 한족의 민족성향은 자기 신념과 의지가 강하면서, 융통성이 있고 근면하고 검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앙

북한에 있는 한족의 3/4은 무종교이며, 15%는 무신론자다. 이러한 높은 무종교 비율은 공산주의 정부가 모든 종교 활동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중국 민속신앙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이 죽은 자들의 세계로 떠나기 전에, 썩지 않고 남아있는 해골이나 뼈에 머물면서 이 세상을 떠돈다고 믿는다. 즉, 그 영혼들이 마치 살았을 때 이 세상에서 생활한 것처럼, 죽은 후에도 영혼의 상태로 이생을 떠돌며 생활한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다가 이렇게 떠돌며 생활하던 영혼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조상의 영혼"(ancestral spirit)으로 모시는 나무나 종이로 만든 영혼 위패에 와서 쉰다고 믿는다. 만약, 이러한 떠도는 영혼들을 달래지 않으면 이 영혼들이 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한족들은 믿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북한에 있는 16만7천명의 한족 중에서 기독교인은 200명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다린어로 된 기독교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소중한 한족을 위해 현재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는 하나도 없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복음을 접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첫걸음은 기도일 것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무신론 단체들 백악관 성경공부 딴지

무신론 단체들이 미국 백악관에서 매주 이어지는 성경공부를 사실상 '방해'하고 나서 논란을 낳고 있다.

미국 기독매체인 CBN은 무신론 단체인 '종교로부터자유재단(FFRF)'과 '책임과윤리를위한시민들(CREW)'이 벤 카슨 장관이 이끄는 미국주택도시개발부를 고소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CBN은 지난해 7월 카슨 장관을 포함한 각료들이 백악관에서 매주 모여 성경을 공부한다고 전한 바 있다.

FFRF와 CREW는 성경공부에 참석하는 각료들이 정부 자산을 사용하고 있는지와 부서 직원들이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강요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성경공부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각료들만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회선교회 창립자이자 성경공부 리더인 랄프 드롤링거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의회선교 사이트에서 각료들과 의회의원들을 가르치기 위해 내가 집필한 성경교재를 확인해 보라"며 "비밀이 전혀 없으며 성경공부와 관련된 경비는 모두 의회선교회에서 부담한다"고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독교계 측근으로 알려진 로버트 제프리스(댈러스 제일침례교회) 목사는 "이런 공격은 개인이 가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편협한 시도에 불과하다"며 "각료들은 백악관에서 휴대전화를 반납할 수는 있겠지만 종교의 자유를 반납할 필요는 없다"고 두 무신론 단체를 비판했다.

구글이 만든 AI "예수 누군지 몰라"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구글(google)의 인공지능(AI) 음성 비서 서비스 '구글홈'이 "예수는 모른다"고 답해 논란을 빚고 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구글홈이 '예수가 누구냐'는 질문에 '미안합니다.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지난 26일 보도했다.

또 불교 창시자인 부처나 이슬람교 창시자인 마호메트에 대한 질문에선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를 인용해 응답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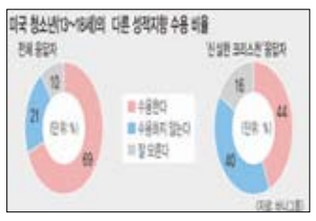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거세지자 구글 측은 성명을 내고 마호메트와 부처에 대한 응답 서비스를 중지했다. 구글은 "특정 주제는 폭력이나 스팸 메일에 취약할 수 있어 그런 상황에서는 응답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다른 해법을 찾고 있으며 종교 인물에 대한 응답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해명했다. 또 마호메트와 부처에 관한 구글 홈의 답변 내용은 "종교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바꿨다.

이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교계 반응도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기독교 잡지 프리미어크리스채너티는 "예수를 모른다고 답한 구글홈에 화를 내기 전에 기독교인들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마7:3)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이웃들에게 찬양을 들려주려고 시도한 적은 있는지 또 예수가 누구냐는 질문에 좋은 답을 건넨 적은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며 "예수가 누군지 답해주는 건 구글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이라며 기독교인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미 청소년 12% "나는 성소수자"



미국 청소년 중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LGBT)나 무신론자의 비율이 성인의 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여론조사기관 바나그룹은 지난해 7월 7-18일 미국 13-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LGBT·무신론자 해당 여부와 성적 지향에 대한 수용도 등을 설문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설문 대상이 된 18세 이하 세대는 1980년 이전에 태어난 X세대, 1980-2000년생인 Y세대에 이어 Z세대로 불린다. Z세대의 성 정체성 변화와 무신론 경향 확산은 교회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설문에서 Z세대의 12%는 자신이 이성애자가 아닌 LGBT 중 하나 이상의 성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갤럽에서 미국 성인 4.1%가 LGBT라고 발표한 것보다 3배 가까이 높은 비율이다.

Z세대는 성적 지향과 관련된 주제에 기성세대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응답자 중 37%는 성 정체성이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응답했다. 이들의 부모 세대인 X세대는 28% 정도만이 LGBT 문제를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여겼다.

이들은 본인이 이성애자라도 다른 성적 지향에 수용적 태도를 보였다. 전체 응답 중 '다른 성적 지향을 수용할 수 있다'는 69%, '수용할 수 없다'는 21%, '잘 모르겠다'는 10%였다.

신실한 크리스천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도 '다른 성적 지향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44%에 이르렀고, '수용할 수 없다'(40%) '잘 모르겠다'(17%)가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에서 무신론자라는 응답(13%)은 앞서 갤럽이 조사한 성인 무신론자 비율(6%)의 배를 넘었다. 크리스천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9%였으나 11명 중 1명의 응답자만 자신이 신실한 크리스천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5명 중 1명은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기독교가 세상에 만연한 악과 고통의 문제를 설명하지 못한다'(29%)거나 '기독교인의 위선'(23%), '성경과 과학의 충돌'(20%) 등을 이유로 기독교를 꺼리게 됐다고 답했다.

미국 기독교 연구기관 라이프웨이의 학생사역 책임자 벤 트루블루드는 23일 미국 크리스채너티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이 같은 까다로운 주제를 피할 수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도전이 닥쳐왔다"며 "학생 사역자들은 앞으로 LGBT 같은 문제를 성경적으로 잘 가르쳐야 할 의무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북한에 어린이 크리스천이 없는 이유

북한에는 왜 어린이 크리스천이 없을까. 이는 바로 가족 간에도 신앙을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기독교 탄압이 극심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세계 최악의 종교 박해국'이라는 악명을 떨치는 북한 정권의 탄압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탈북동포 이주찬 목사는 최근 오픈도어선교회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크리스천 부모들은 탄압 때문에 수십 년간 자신의 신앙을 자녀들에게조차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북한 지하교회를 돕고 있는 이 목사는 "북한의 크리스천 부모들은 자녀에게 종교 행위를 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는 두려움을 안고 산다"고 덧붙였다. 이 목사는 자신 또한 부모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30년 이상 모르고 자랐다고 털어놨다. 그는 "부모님은 항상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봤는데 사람들은 그런 부모님을 '진정한 공산주의자'라고 불렀다"면서 "하지만 부모님은 공산주의자를 초월한 크리스천이었다"고 말했다.

"부모님은 밤이면 몰래 비밀스러운 책(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전 속삭이듯 성경구절을 읽는 부모님의 목소리를 듣곤 했죠. 부모님이 지혜로운 건 바로 그 책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성경을 읽는 게 들통 나면) 가족이 헤어지게 된다는 걸 알아 결코 남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는 탈북에 성공했지만 아내와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탈북 과정에서 끔찍한 최후를 맞았다. 이 목사는 모친과 형이 강을 건너다 북한군의 습격으로 목숨을 잃는 광경을 지켜보기도 했다.

북한은 1992년 이후 명목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악의 종교 탄압국이다. 북한은 오픈도어선교회가 해마다 발표하는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WWL·World Watch List)에서 16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북한 정권은 인민들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정권에 복종하도록 세뇌시키기 때문에 가족 간 복음전파마저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中, '트럼프 장벽' 보다 큰 '만리장벽' 건설

중국이 이슬람 국가들과 인접해 독립요구가 끊이지 않는 신장위구르자치구의 5700㎞에 달하는 국경 지대에 '장성'(長城)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실제 장성이 만리장성 같은 물리적인 방벽을 의미하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실제 건설된다면 미국의 멕시코 장벽 보다 훨씬 긴 국경 구조물이 들어서게 된다.

25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신장위구르자치구가 올해 국외의 극단 분열주의와 테러세력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5700㎞ 국경에 장성을 건립할 계획을 밝혔다.

신장위구르자치구 쉐커라이디 짜커얼 주석은 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를 통해 "신장 사회보장 관리에서 절대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짜커얼 주석은 "변경지대의 안전보장과 인터넷 관리 강화를 통해 신장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고, 변경지구의 도로 등 인프라시설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해 3월 신장 대표단과 좌담회에서 "신장은 민족단결, 사회안정을 위한 '강철 장성'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신장 장성'이 외부의 이슬람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의 침투를 막고, 위그루족과의 연대감을 강화시키는 여러 조치들을 포괄하는 은유적 표현일 가능성이 커보인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신장 지역의 이슬람 테러조직 및 분리주의들의 동향에 극도로 민감한 상황이다. 중국은 1100만명의 모든 위구르족을 잠재적 테러 용의자로 간주해 주민 DNA 수집 등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장성 건설이 실제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벽이 건설되면 춘추전국시대 때 만든 만리장성(6260㎞)에는 못미치고 미국이 추진중인 멕시코 장벽(3144㎞)보다는 훨씬 긴 국경 장벽이 들어서게 된다.

'손오공 환생?' 中, 원숭이 복제 성공

중국 과학자들이 세계 최초로 체세포핵치환(SCNT)기법을 통한 원숭이 복제에 성공했다. 영장류를 복제한 첫 번째 사례다. 중국 언론은 '손오공 신화'의 현실판이라며 흥분하고 있다.

'중신사' 등 현지 언론은 "중국과학원(CAS) 신경과학연구소 연구진이 SCNT 기법을 사용해 원숭이 2마리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25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소설 '서유기'에서 주인공 손오공이 자신의 털을 뽑아 입에 넣고 씹다가 내뿜으면 그 털들이 200-300마리의 작은 원숭이가 되는 대목을 연상케 한다"고 설명했다.

SCNT 기법은 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후 여기에 다른 체세포에서 분리한 핵을 넣어 복제 수정란을 만드는 기법이다. 복제 수정란을 대리모에 착상하면 체세포를 제공한 개체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를 얻을 수 있다. 1996년 영국에서 복제 양 '돌리'를 탄생시킬 때 사용된 기법이기도 하다.

'돌리'의 탄생 이후 수많은 연구진이 같은 기법을 활용한 영장류 복제에 힘썼으나 지금껏 모두 실패했다.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기 직전 단계인 '배반포기'까지 제대로 발달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

CAS 연구진은 복제 수정란의 발달을 활성화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5년간 연구에 매진했다. 원숭이의 복제 수정란을 만들 때부터 실제 상태와 최대한 가깝게 제작했고, 핵을 제거한 원숭이 난자에 넣어줄 체세포 핵을 원숭이 성체가 아닌 태아로부터 분리해 넣었다. 이후 난제였던 배반포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복제 수정란이 잘 발달하도록 여러 화학물질을 처리하는 방식을 썼다.

CAS 연구진은 총 109개의 복제 수정란을 만들어 21마리의 원숭이 대리모에 나눠 착상시켰다. 그 결과 6마리의 대리모가 임신에 성공했고 이 중 2마리가 새끼를 낳았다. 새끼 원숭이는 체세포를 제공한 태아와 유전자가 일치했다.

이렇게 탄생한 두 마리의 원숭이에게 CAS 연구진은 '중중'과 '화화'라는 이름을 각각 선물했다. 이는 중국을 뜻하는 '중화'에서 한 글자씩을 따온 것이다. 또 연구가 별 탈없이 진행된다면 이달 말 세 번째 복제 원숭이인 '멍멍'이 태어난다는 말도 전했다.

세계 최초의 원숭이 복제 소식이 전해지자 다음 차례는 인간이 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반응이다. CAS 연구진의 방법이 비효율적이며 위험하다는 것이 이유다.

CAS 연구진을 이끈 순창 주임도 "이번 사례로 의학계는 뇌신경질환이나 암 같은 사람의 질환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도 인간 복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미국 학교 잔혹극…올 들어 11번째 총기난사

미국 켄터키주 서부 작은 마을 벤턴의 마셜카운티고교에서 23일 총기 난사로 2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고 CNN방송 등이 전했다. 교내 총기사건이 일상화된 경향을 보이는 미국에서 올 들어서만 10차례 넘게 학교 안팎에서 총성이 울렸다.

마셜카운티고교 총기난사범은 15세 소년으로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라고 매트 베빈 주지사는 밝혔다.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범인을 성인으로 볼지 미성년자로 볼지를 결정한 뒤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수업 시작 전인 오전 7시57분 교내 공터에서 발생했다. 범인이 권총을 난사하면서 20명 가까운 사람이 총에 맞았다. 15세 여학생 홀트 베일리가 현장에서 숨졌고, 동갑 남학생 프레스톤 코프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했다.

제프 에드워드 지방검사는 특정인을 노린 게 아닌 무차별 총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에 갔을 때 책가방과 전화기가 땅바닥에 널려 있었다"며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올 들어서만 최소 11건의 학교 총기사건이 발생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전날 텍사스주 댈러스 외곽 고교 카페테리아에서 16세 소년이 총을 쏴 15세 여학생이 다쳤고, 같은 날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한 공립학교 주차장에서도 총격이 일어났다. 이달 초에는 아이오와주의 한 스쿨버스와 서던캘리포니아의 대학 캠퍼스, 워싱턴주 시애틀의 고교 등에서 총기사건이 발생했다.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3)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초대교회는 어거스틴의 은혜사상 따르고 펠라기우스의 자유의지론 버려
중세교회는 반펠라기우스 사상 정립...영적침체에 도전, 적극적 신앙추구

반펠라기우스주의가 수도원운동에 접목...부 축적 힘 키우면서 교회에 영향
중세교회 수도원운동은 교황중심 교회론으로 로마가톨릭주의 온상으로 전락

중세교회의 정체성

다른 시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세교회에 대한 관심이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 한 마디로, 교황을 중심으로 발전한 중세 로마가톨릭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크게 이탈한 형태이며 나아가서 개신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사실 교황제도는 기나긴 세월동안 오르내리는 과정을 숨차게 달렸던 중세교회를 이해하는 핵심 단어이다. 중세교회의 체제와 이 시대에 일어났던 다양한 운동이 교황제도를 뒷받침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이다. 8세기경부터 시작된 로마가톨릭교회의 독특성을 살펴볼 때, 분명히 개신교와 다르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세교회는 초대교회의 성경적 모습으로부터 변형된 형태였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진단이라 생각된다. 기존의 교회 전통이 로마교회로 흘러 들어가서 매우 독특한 로마가톨릭주의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로마가톨릭교회는 교황제도의 정통성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베드로가 로마교회의 최초 감독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베드로가 로마교회를 세웠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문건이 없는,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이다.

초대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향후 교황중심의 중세교회의 체제가 출현할 것이라고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교회의 어느 부분도 교황에 대한 언급이 없이 공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중세교회 자체가 교황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과연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을까? 복합적인 원인으로 생겨진 일이기에, 쉽게 설명될 수 없다. 단지 중세교회 1000년의 역사 전체를 두고 살피면서 맥을 잡아가면, 중세교회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얻어낼 수 있다.

교회내의 갈등과 안정

사도적 신앙으로 뿌리를 내린 초대교회의 신학을 정리한 인물은 교부 어거스틴(354-430)이다.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줄곧 교회 내의 갈등을 불러왔던 다양한 신학 논쟁들이, 초대교회 뒷자락에 나타난 폭넓게 활동한 그에 의하여 총정리 되었다. 어거스틴의 사상은 성경적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기둥이 되었다. 교회가 급속히 안정을 찾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거스틴이 세운 다양한 신학 사상의 전통 가운데 후대 교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상은 어떤 것이었을까? 인간이 지닌 원죄와 자유의지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정의에 근거하여, 죄인이 구원을 받고 신앙인답게 살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학 전통을 세운 것이다. 이는 성경을 신중하게 탐구한 결과이자, 자신의 신앙 체험적 고백이기도 하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와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펠라기우스(Pelagius, 354-420)를 꼽을 수 있다.

그는 금욕적인 생활과 도덕적 삶의 모습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럼에도 인간의 구원과 경건에 도달하는 방편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유의지라고 소개하면서, 어거스틴의 사상과 정반대의 길을 당당하게 걸었던 인물이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두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는 또 한 번의 심한 갈등을 겪게 된 것이다. 결국 초대교회는 안정을 꾀하기 위해여 두 사람의 사상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했다. 결과는 어거스틴의 승리였다. 초대교회는 그의 은혜 사상을 인정하는 동시에,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마친 것이 모두 끝난 것이 아니었다. 불행하게도 두 사람의 신학 논쟁의 핵심이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다시 수면이 오르기 시작하였다. 두 사람이 걸었던 두 개의 길로 인해 야기된 갈등이, 중세교회에 들어와 다른 양상을 띠면서 교회의 기저가 흔들리게 되었다.

반펠라기우스 주의

앞서 우리는 중세교회의 특징을 교황의 권위를 중심으로 세워진 로마가톨릭 체제라고 정의하였다. 그렇다면 로마가톨릭교회의 기본 사상은 무엇이며, 그들이 세운 체제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중세교회는 어거스틴의 은혜 중심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 대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펠라기우스의 사상에 관심을 가졌으며, 인간은 자신의 의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도 협동할 수도 있다는 반(半, Semi-)펠라기우스 사상을 정립하게 되었다.

반펠라기우스 사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전적 타락 역시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의지를 강조한다.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인간의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원죄로 인하여 철저하게 망가진 인간의 보잘것없는 모습과 동시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적 타락을 인정하면, 인간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결국 인간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는 핑계에 불과한 것이기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의지를 지닌 인간이 협력함으로서 주어진 목적을 분명하게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반펠라기우스 사상은 영적으로 침체한 자들에게 커다란 도전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인간의 전적타락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을 강한 의지에 입각하여 책임을 다하는 행동의 주체로 소개하기 때문이다. 자연적으로 반펠라기우스는 초기부터 적극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끌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수도사들 사이에 펠라기우스 사상이 공유되고 급속히 널리 퍼져나갔다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요한 카시아누스(Johannes Cassianus, 365-435)가 있었다. 그는 베들레헴 수도원에서 몇 년간 수도 생활을 익힌 후, 동방 기독교 영성의 산실이었던 이집트 사막의 수도원에 머물면서 10여년이 넘도록 고독과 싸우며 기도와 참회에 몰두하였다. 그가 반펠라기우스주의를 접하게 된 것은, 그가 5세기 초에 로마에 갔을 때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사이의 논쟁에 휘말리게 된 후 부터이다.

비록 초대교회가 어거스틴의 손을 들어주고, 펠라기우스를 정죄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카시아누스는 어거스틴의 견해를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그가 금욕 생활을 하던 대부분의 수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로 신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즉, 그가 걸어온 신앙의 여정과 걸맞게 인간의 자유 의지를 강조하는 펠라기우스의 견해를 수용하였던 것이다.

수도원 운동과 로마가톨릭주의

향후 카시아누스는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로 이주하여 수도원을 설립하고, 그곳에 머물면서 인간의 노력을 필수 요소로 하는 금욕 생활을 발전시켰다. 그가 저술한 "담화집"에 그의 사상이 잘 드러나 있다.

이 책은 이집트에서 만난 사막 교부들과 나눈 담화들을 정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서방 교회 수도사들에게 내적 생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수도 생활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사상이 널리 퍼져나가게 된 동기가 된 것은 서방 수도원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성 베네딕트(St. Benedict, 480-547)가 저술한 "수도원 규칙"을 가장 중요한 기본 정신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함께 강조하였던 카시아누스의 반펠라기우스 사상이 서방교회 수도원 운동에 접목된 것이다. 어거스틴의 사상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있었던 서방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향후 수도원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반펠라기우스 사상이 점점 확대되어 확고한 자리를 확보하게 되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수도원 운동은 중세교회에 들어와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된 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초기 수도원은 개인의 경건 신앙을 위해 함께 모여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이뤄지는 형태로 시작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적인 질서를 위해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강조하면서도,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신앙 증진을 위한 공동체로 남아있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수도원이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특히 수도원이 부를 축적하고 힘을 키우면서, 직간접으로 교회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더니, 결국 수도사들이 성직자들이 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심지어 교황은 반드시 수도사 중에서 뽑는 형편에 이르기도 하였다.

이로서 중세교회 수도원 운동은 교황을 그 중심에 놓는 교회론을 기초로 한 로마가톨릭주의의 온상으로 전락되었다. 수도사들이 서방교회를 움직이는 힘을 지녔다는 것은, 결국 자연스럽게 오래전부터 그들의 뿌리로 남아있던 반펠라기우스 사상이 중세교회를 장악하였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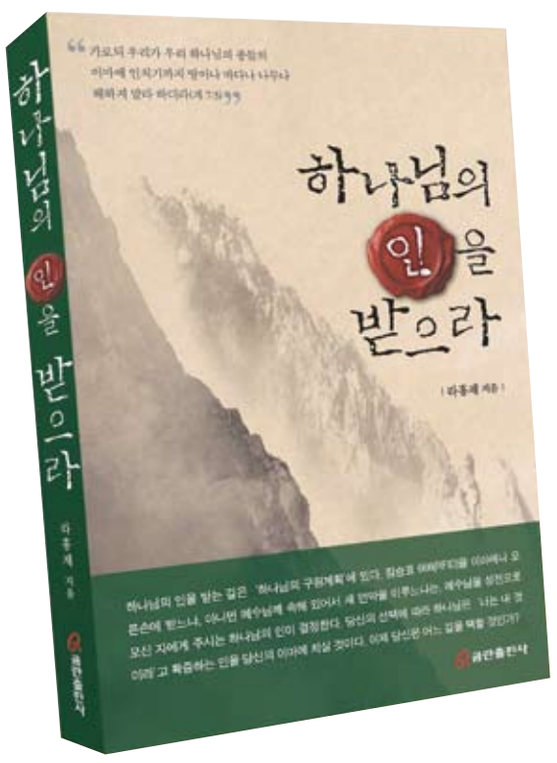
16세기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루터와 칼빈과 같은 개혁자들에 의하여 어거스틴의 사상을 회복하였다. 그들이 로마가톨릭교회를 향하여 외쳤던 항변은, 절대적인 교황의 권위에 대한 도전 정도가 아니었다. 중세교회가 오랜 시간동안 빼앗은 어거스틴의 은혜 중심의 신학을 다시 찾아오기 위하여 생명을 내건 절규였다.

covenantcho@yahoo.com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323-665-0009(LA)(판매)

청교도 신앙 (46)

청교도와 학교 교육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세워진 하버드대가 세속화 되자 예일대 설립
연방정부에게 교육책임 받은 주정부는 대중교육 고정하는 자체헌법 작성

7) 고등교육

신앙의 내용인 신조를 영속화하고 충분히 훈련되고 학문적으로나 지적으로 빈틈없는 목사를 배출하려던 청교도의 관심은 몇몇 대학의 발 빠른 설립 안에 드러나 있다. 제일 처음에 세워진 대학은 1636년 목회자와 기독교 교사의 훈련을 위해 특별히 공식적으로 인가를 받은 하버드대학이었다.

그 대학의 교훈은 최초로 건립된 건물의 현관에 새겨졌고 오늘날에도 그곳에 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Pro Christo et Ecclesia), 설립 동기는 젊은 회중교회 목사 존 하버드(John Harvard)가 임종하면서 그와 같은 학교의 설립을 위해 자신의 장서 전체와 약 750파운드 가량의 돈을 남겼기 때문이었다. 물론 정부의 세제 지원과 땅의 양도 역시 하버드의 재정 상태의 밑받침 구실을 하였다.

하버드의 교과과정은 철저히 기독교적이었는데 목회 후보자들에게 광범위하면서 포괄적인 훈련을 실시하였다. 교과과정은 중세 시대 본산학교의 7가지 교양과목 가운데 6가지만 채택하였다- 문법, 수사학, 논리학, 수학, 기하학 그리고 천문학이었고 음악만 정규과정에서 제외되었다.

그 외에도 꽤 많은 양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와 기독교식 종교 정설에 관한 엄격한 훈련이 실시되었다. 따라서 청교도 목회자들과 교사들은 세속적인 것과 기독교적인 학문에 공히 아주 다재다능한 학자들로 받아들여졌다.

당시의 기독교 대학의 경우처럼 하버드 역시 기독교 경건의 훈련과 실행을 위한 보루였다. 하루 두 번, 아침과 저녁으로 학생들은 개인적인 성경 독서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했다. 그들은 지도교수에게 자신들이 받은 영적 사실에 관한 새로운 지식이나 견해를 보고하도록 요청받았다. 처음 얼마간의 우여곡절 끝에 하버드대학은 1642년에서야 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1701년에 설립된 예일(Yale)대학 역시 설립 당시에는 칼빈주의 신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던 회중교회가 운영하던 학교였다. 잉크리스와 코튼 매더는 자유주의적인 조류가 하버드에 밀려들 당시에 예일이 설립되도록 도움을 주었다. 커네티컷(Conneticut) 주의 뉴헤븐(New Heaven) 학교는 예일 학장 크랩(Thomas Clap)이 1654년에 성명서에서 명시한 것처럼, 복음을 전할 목회자들을 준비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였다. "대학은 다른 무엇보다도 월등한 성격을 지닌 기독교적 사회이다...." 대학은 목회사역을 위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의 사회'이다.

예일이 커네티컷 주정부에 의해 최초로 설립인가를 받았지만, 뒤에 학교의 운영을 지도하는 11명의 목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설립되었다. 그로서 정부의 통제에 반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된 미국 최초의 대학이 되었다.

7. 서부의 교육

식민지의 시기에 미국의 교육은 철두철미하게 기독교적이었다. 초등학교에서는 아동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읽기와 쓰기를 집중적으로 가르쳤다. 중등학교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대학과 목회를 준비하도록 실용적인 교육과 고전의 일부를 취급하였다. 식민지 대학의 목적은 젊은이들에게 성경연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기독교 사역을 훈련시키는 것이었는데, 하버드 대학의 교훈인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로 가장 잘 요약될 수 있었다.

다양한 교회들의 교리문답과 성경은 식민지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두 가지 교과과정일 것이다. 뉴잉글랜드의 공립 초등학교와 라틴어 문법학교, 중부지역의 사립 교회학교이든 아니면 남부 지역의 사립 교육이든 간에 학교들은 모두 청소년의 기독교 교육을 위한 교회의 도구로 간주되었다.

루터교들은 루터의 '소교리문답(Short Catechims)'을 사용하였으며 성공회 교인들은 교회의 공식적인 기도서를 포함한 교리문답을 이용하였다. 아동은 교리문답을 철저하게 배웠고, 또 주요 교리의 핵심적인 부분은 대부분 암기해야만 했었다. '뉴잉글랜드 초보 독본'과 같은 식민지의 독본들은 교리문답 외에도 성경의 내용을 담아서 아동들에게 읽기 교육을 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 당시에는 주일학교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 교육과 양육의 책임은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도 상당히 많이 감당하였다. 기독교 가정의 분위기와 맞물린 그런 교육은 아동에게 경건이 스며드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1) 서부로의 확장

1700년 이래 유럽 정착민들의 거대한 유입은 식민지의 인구와 정치력을 증가시켰다. 서부로의 확장은 불가피하였다. 서부로의 확장은 흩어져 있으면서도 증가 추세인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교육양식을 낳게 하였다. 산재한 신흥지역 사람들을 위한 학교의 운영이 요청되었고 뒤에 그 지역은 학군(school districts)이 되었다. 학교에서는 순회 교사들이 가르쳤는데 그들은 중요한 교과과정의 부분을 감당할 정도로 충분히 머무르며 가르친 후, 다음에 그들이 떠났던 곳을 선택해 되돌아가는 식으로 구역에서 구역으로 이동하곤 했었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보다 실용 지향적이었는데 농부와 상인들은 자녀들에게 고전 라틴어 문법교육을 실시할 필요를 거의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읽기, 쓰기, 기초 산수와 기타 변경생활과 생존에 유용한 학과들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교과과정과 교사들을 감독하던 중심 타운(town)은 그때까지도 구역 학교들을 통제하지는 못했다.

독립전쟁을 시작하면서 식민지의 독립을 확보한 이후에 새롭게 구성된 연방정부는 교육의 책임을 각 주로 이양하는 중대한 움직임을 보였다. 얼마 안 있어 새로운 주 모두는 시민 전체를 위한 대중 교육을 강력하게 고정하는 자체 헌법을 작성했다. 주정부는 기존의 학교들과 이미 관계를 맺고 있던 교회 및 종교 집단들과 진행을 모색했지만 주 정부의 통제와 권한은 점차 현실화되었다.

남북전쟁 이전시기(antebellum)의 교육은 국가적 자유와 통일이라는 새로운 정신을 부여하면서 크나큰 활력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 하였다. 워싱턴(George Washington), 아담스(Adams), 그리고 제퍼슨(Thomas Jefferson)과 같은 인물들은 대중 교육의 탁월함을 강력하게 옹호하던 사람들이었다. 대중 교육을 위해 가장 큰 소리를 낸 사람은 제퍼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19세기 초엽에 버지니아에서 대중이 지원하는 학교제도를 강력하게 제안하였다(그러나 실패로 판명되었다).

younsuklee@hotmail.com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한국인 암 발병률 1위

암의 발생은 민족별로 발생 빈도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면도 있지만 후천적인 면도 그 발생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위암이 많고 대장암이나 유방암의 발병률이 낮지만 미국에 이민 온 일본인 2-3세들은 위암이 적은 대신 미국인들에게 흔한 대장암이나 유방암의 발병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도 미국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에 따라서 각종 암 발생의 빈도가 바뀐다고 볼 수 있다.

-은퇴한 60대 중반의 남성인 임 모씨는 평소에 건강한 편이었으나 약 3개월 전부터 공복에 속이 쓰린 느낌이 있었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소화제를 먹어도 통증이 계속 되자 주위의 권유에 따라 건강검진을 겸해서 병원을 찾아왔다. 임 씨의 과거 병력은 고혈압을 10년 동안 앓아왔고 현재 약물 치료로 잘 조절되고 있었다. 수술은 젊어서 맹장 수술을 한 것이 전부였다. 지금도 매일 아침 등산을 갈 정도로 건강한 편이고 건강관리에 관한 관심도 많았다. 술이나 담배는 일절 하지 않았다. 검진 상 복부에 경한 통증이 만져지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일단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진단하고 재산제로 치료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2주 후에 다시 위장 장애 증상이 나타나서 내시경검사를 했다. 내시경 검사 상 임씨는 조기 위암진단을 받았다. 처음에는 절망에 빠졌지만 조기 위암은 수술 성공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임씨는 용기를 내어 수술했다. -

조기 위암이란 림프샘 전이 여부에 관계없이 암세포가 위 점막 내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조기 위암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수술 후 생존율이 90퍼센트 이상이기 때문이다. 위암은 일본인이나 한국인에서는 가장 흔한 암이지만 선진국에서는 그 빈도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미국인들에게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암이다.

위암은 남자에게서 여자보다 2배 이상 발견되고 짠 음식이나 훈제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 많이 발생하며 흡연이나 음주 습관과도 관계가 있다. 신선한 채소나 과일 등을 적게 먹는 습관도 위암 발병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즘 많이 연구되고 있는 헬리코박터균 감염은 위암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특히 어릴 적에 감염되는 경우 위암 발생률이 높고 나이가 들어서 감염이 되는 경우는 궤양과는 관계가 있지만 위암과의 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또 위염이 오래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을 때에도 위암을 유발하는 위험인자가 된다. 재미있는 사실은 미국에 사는 일본인은 일본 본토에 사는 일본인보다 위암 발병률이 낮아 미국인의 위암 발병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후천적인 식생활의 영향이 위암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 주류 언론에서 한인의 높은 위암 발생률을 보도했다. 이는 매우 의미가 있다. 이제까지 미국에서 대부분의 질병 통계는 백인 위주로 집계되어 왔기 때문에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 출신의 이민자들에 대한 통계는 부족한 상태다. 이로 인해 조기 진단과 치료가 늦어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계에 대한 통계 발표는 앞으로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 의학이 많이 발달했지만 아직 모든 암을 완치하는 수준까지는 발달하지 못했고 조만간 완치될 가능성도 많지 않다. 그러나 조기에 암을 발견하는 경우 치료 방법들이 발달되어 있고 완치 확률도 높다. 따라서 조기에 암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는 암 발병 이후의 생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사협회에서는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얼마주기로 검사를 해야 하는지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장암은 3-10년마다 대장검사를 하며 유방암은 40-70세 여성에게 1-2년에 한번 씩 방사선 유방검진을 하도록 권하고 있다. 백인에게 위암이 워낙 드물기 때문에 위암 검사에 대한 연구는 자료가 미비하다. 일본의 예를 들면 40세 이상의 성인에게 위 내시경 검사를 매년 시행해서 위암의 치료율을 향상시켰다는 통계가 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8년도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8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8.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8)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2. Examination Date and Place:
1) Dates: May 18(Fri)~21(Mon), 2018
2) Place: Old Westbury, NY USA

3. Examination Subjects
1) Written Test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2) Written Assignment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1) OT Exegesis Text : Psalm 110:1-7
(2) NT Exegesis Text : Rom. 4:17-25
(3) Thesis Topic : Evaluate the New Perspective of Tom Wright in the view of the Reformed Theology.
(4) Sermon Text : Luke 16:19-31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1.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2.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 space,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3.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4.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5.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drjho@hotmail.com or Jhothoben@g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a)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b)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JohnJhoOTExegesisPaper.pdf)
c)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3) Oral Interview

4. Accompanying Documents
1)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with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8.
2)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3)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4)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5) Curriculum Vitae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6)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7) Fee: $150 (USD). Pay to the order of - KACPC (Retake Exam fee: $100)

5.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1)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8.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8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2)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3)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2nd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2-25, 2018).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6. Miscellaneous Information
1)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8-21, 2018 Old Westbury, New York) through Rev. John Jho.
2)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7. Submission Address
Rev. John E. Jho / Address: 6554 W. Desert Inn Road Las Vegas, NV 89146 U.S.A.
Cell : (7028) 296-9193, E-mail : drjho@hotmail.com, or jhothoben@gmail.com

8.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1) Chair of the Exam Committee : Rev. Sunghoon Cho (718) 986-8442 kfpcny@gmail.com
2)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Rev. John E. Jho (702) 296-9193 drjho@hotmail.com, or jhothoben@gmail.com
3) Treasurer of the Exem Commitee : Rev. Jae Hyun Han (831) 9207043 jhanrev@gmail.com

총회장: 유재일 목사 서기 : 최중현 목사 고시부 부장 : 조성훈 목사 고시부 서기 : 조용철 목사

목회서신

말세기적 사탄의 영적 도전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세상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성도로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知彼知己, 百戰百 勝)한다"는 손자병법(孫子兵法)대로, 사탄의 영적 도전에서 승리하려면 사탄의 말세기적 영적 도전을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 급선무임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1. 가정 파괴 작전

사탄은 절대적 왕권과 민족적 국수주의와 패권주의로 점철된 양육강식적 힘의 역사로 성도들을 말살시키려는 책략을 꾀했고,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으나,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순교를 당하면 당할수록, 말살 당하기는커녕 더욱 더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하나님의 나라 가 확장되어 감을 보고, 이에 놀란 사탄은 강압적인 힘의 역사에서 평화와 안식으로 작전을 바꾸었고, 구체적 사탄의 말세기적 영적 도전으로 교회를 분열, 파괴시키기 위하여 가정 파괴 작전으로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작은 교회이며, 교회는 큰 가정이므로, 기독교 가정이 파괴되면 교회는 자연히 무너지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면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말세기적 영적 도전으로 인한 가정파괴를 막기 위해 가정의 파수군(Family Watchman), 가정의 지킴이(Family Keeper)가 되어야 하고, 파괴된 가정을 바로 세우고 회복시키기 위해 가정의 세움이(Family Set-Upper)가 되어야 하며, 영적 결손가족을 복음화 시키기 위해 가정의 선교사(Family Missionary)가 되어야 합니다.

2. 저출산율과 결혼적령기 지연작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후, "생육하고, 번 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창1:28)고 5가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적 결혼과 가정의 추세가 '사랑만 하고 애기가 없는(Love Only, Babyless) 가정'으로 변모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국이 출산율 1.22로 저출산율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같이 사탄은 하나님의 가정축복에 도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저출산율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결혼적령기가 20대 초, 중반에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2008년 이후의 세계 적 경제위기와 함께 결혼적령기가 30대 초, 중반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40대에 이르도록 결혼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거의 5-10년 결혼적령기가 지연되고 있음입니다. 이 또한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탄의 중대한 영적 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탄의 저출산율과 결혼적령기 지연작전 등의 영적 도전을 막으려면, 일찍 결혼하고, 자녀들을 많이 낳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소원이신 가정선교입니다.

3. 경제위기 작전

경제불황과 경제위기를 통해 돈줄을 막아 세계선교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사탄의 말세기적 영적 도전입니다. 로마가 세계 최강의 제국과 무적의 군대로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보급로 확보에 있었습니다. 선교는 영적 전쟁이고 종합예술입니다. 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 그리고 돕는 선교가 좋은 하모니를 이룰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 제 2위의 선교대국으로 15,000명 이상의 선교사가 세계만방에 나가있지만 선교후원금을 보내주지 못하면 실탄공급이 중단되어 총을 쏠 수 없는 군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파산과 해고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각 교회마다 십일조와 헌금이 30-50%까지 줄어들어, 제대로 선교헌금을 보낼 수 없어, 선교사들이 사역하지 못하고, 안식월, 안식년 등으로 되돌아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같은 경제위기를 통한 선교방해가 바로 사탄이 노리는 말세기적 영적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경제위기 작전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성도들의 사업장과 기업이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하고 크게 쓰임 받아야 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뉴저지교협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임원들. 왼쪽부터 박인갑 총무, 윤명호 회장, 홍인섭 부회장.

'교회를 위한 교협' 에 행사목표 맞춰

뉴저지교협 기자간담회서 31회기 남은 일정 발표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회장 윤명호 목사)가 지난 24일 오전 뉴저지동산교회(담임 윤명호 목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제31회기 뉴저지교협은 이날 '지역교회들을 위한 교협'이라는 표어에 걸맞게 소통하고 고민하고 변화하는 교협의 모습을 보였다.

윤명호 회장은 취임 이후 여러 가지 변화를 소개했는데 행사 목표를 철저하게 지역교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에 2018 호산나대회도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말했다.

우선 호산나대회는 3일이 아니라 6월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윤명호 회장은 "이제는 개 교회 부흥회도 안 오는 시대"라며, "이번 호산나대회는 첫날은 지역교회들을 건강하게 돕는 선교단체들을 위한 사역박람회를 열고 뉴저지 지역의 10여개 선교단체와 지역교회 간에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둘째 날에는 "지역교회들이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전도 잔치"로 치르게 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또 2월 7일(수)과 8일(목), 소망교회에서 한선희 목사를 강사로 기독교 이단대책 세미나를 열며, 세미나 후 교안중심으로 이단대책 관련 소책자를 발행할 예정이다.

윤명호 회장은 "이단문제는 양날의 검"이라며 너무 날카롭게 하다 보면 우리끼리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지나치지 않으며 모두 인정하는 이단에 대해서만 강의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소개했다.

또 교협 35주년 역사편찬을 위해 4년여 전 김창길 목사를 중심으로 역사편찬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번에 35주년사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뉴저지교회 정보들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전임 회장단으로 구성된 증경회장단을 발족했으며, 평신도 지도자들로 이사회를 처음으로 구성하고 10만 달러의 예산을 처음으로 세웠다. 또 자문 변호사에 이어 자문 회계사를 두어 회원교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할 예정이다. 그리고 자료보관 및 사역의 연속성을 위해서 교협 사무실과 사무간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추진하겠다고 윤명호 회장은 밝혔다.

그리고 신년하례식, 부활절연합예배, 그리고 호산나대회 헌금은 교단을 대표하는 협동총무의 추천을 받아 미자립교회 지원금, 뉴저지 지역교회들을 돕는 선교단체 후원금, 한인사회 구제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한인사회 구제활동으로 불우한 환자들을 돕는 '홀리네임 병원 100교회 운동'에 좀 더 많은 교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동시에 잉글우드 병원 환자들을 위한 섬김 사역에도 함께 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세계교육선교대회 준비 모임을 마치고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제2의 아펜젤러, 언더우드를 양육하자 "

2018 세계교육선교대회 준비모임 갖고 힘찬 출발 다짐

2018년 세계교육선교대회가 오는 2월 1일부터 3일까지 풀러신학교(총장 마크 래버튼 박사)와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를 위해 기도회 및 사전 준비모임을 1월 25일 오전 11시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에서 가졌다.

3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우 목사(총괄본부장) 사회로 시작, 참석자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박은성 목사(나성영락교회)가 잠언 22장6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박은성 목사는 "한국에서는 아펜슬러 목사와 언더우드 두 사람이 주축이 돼 한국의 젊은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시켜 우리 한국이 놀라운 발전의 계기가 됐다"며 "이들을 롤 모델로 교육과 선교의 씨앗을 삼겠다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에 열리는 행사로 인해 미국에 있는 한인 청소년들과 다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선교대회를 위해 합심 기도를 하고 샘신 목사(남가주 한인목사회 회장)가 마무리 기도를 했다.

세계교육선교대회는 150명의 선교사들이 등록을 이미 마쳤고 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등록은 오는 1주 동안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교회 담임 목사들과 교수들이 함께 2월 2일(금) 오찬을 갖게 된다.

▲행사 문의: (213)675-6493 이성우 목사

〈기사제공: 세계교육선교대회〉

KAC학생들, 에디슨모의 유엔 대회서 12개상 수상

지난 1월 20일 한미연합회 모의 유엔학생들이 올해 두 번째로 에디슨고등학교 모의유엔 대회에 참석했다. 644명의 학생들과 경쟁한 가운데 KAC 학생들은 10개의 탐구상과 2개의 우수상을 받아 총 12개의 상을 수상했다.

〈기사제공: 한미연합회〉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0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08:00
새벽기도회: 오전 05:30
금요기도회: 오후 08:00
한국학교: 오전 9:30(토)
Tel. (516)520-2004, nygo4tgc@yahoo.com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www.nygeth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철야: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718)361-9199, Fax.(718)361-9433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www.moakyang.org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 화,토
Tel.(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fkcb.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16)883-1977, Fax.(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6:00 (화-토)
Tel.(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e@yahoo.com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718)637-147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 오전 10:3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http://www.cpcofny.org
Tel.(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718)7406-7577, (718)938-1777
188-12 73 Ave, Fresh Meadows, NY 11366
www.nyantioch.com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201)342-9194, Fax.(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연습: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 요 찬 양모임: 오후 8:30
Tel.(718)961-2171, Fax.(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주일학교 오후 1시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347)513-1351 ,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5:00
영어예배: 오후 1:00
Tel.(718)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ma Rd. Manhasset, NY 1103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718)886-4040, Fax.(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q.org

퀸즈한인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718)672-1150 Fax.(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qny.org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및 기도회: 매월둘째(금) 오후 7:30
www.pcov.org
Tel.(604)584-5780, Fax.(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밤예배: 오후 7:00
Tel.(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Fax.(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동부교계 게시판

east

이단대책 세미나

뉴저지교협(회장 윤명호 목사)이 주최하는 이단대책 세미나가 2월 7일(수)과 8일(목), 뉴저지소망교회(담임 박상천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한선희 목사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국의 신흥종교 및 이단계보 △이단들의 오아시스 미국 △신사도운동 △인터콥에 대해 강의한다.

▲문의: (201(592-6004

뉴욕목사회 1차 임실행위원회 및 목회자 세미나

제 46회기 뉴욕목사회(회장 문석호 목사) 1차 임실행위원회 및 목회자 세미나(주제: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가 2월 8일(목) 열린다. 임실행위원회는 오전 9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목회자 세미나는 그 후 오후 12시30분까지 진행된다. 세미나 강사는 김현일 선교사(이스라엘-유대인 전문사역자). 장소는 대한교회(담임 김전 목사)다.

▲문의: (917)951-8291

담임목사 청빙

뉴욕장로교회가 개혁주의 신앙이 확고하며 이민 1세와 2세를 위한 신앙교육과 열방을 향한 선교와 전도에 비전을 가진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지원자격은 개혁주의신학과 보수 장로교 소속 목회자로 대학졸업 후 신학대학원(M.Div.) 졸업, 담임목회 경력 5년 이상으로 제출서류는 한영 이력서(사진 첨부), 신앙고백서와 자기소개서, 목회비전서, 추천서(2인 이상). 서류심사 후 추가서류(학위증명서, 안수증명서, 설교자료 등) 요청을 개별 통지한다. 마감은 2월 24일.

▲문의: NYPCREVIVAL@GMAIL.COM

'싱글 부모와 자녀양육' 세미나

'싱글 부모와 자녀양육' 세미나가 3월 3일(토)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뉴저지 잉글우드 메디컬 센터에서 열린다. 주제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자녀 양육 원칙"이며 강사는 정정숙 박사. 오찬과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네이버플러스와 패밀리터치가 공동 주관한다.

▲문의: (201)461-0909, 242-4422

열방교회 설립 20주년 기념 부흥회 및 안수식

열방교회(담임 안혜권 목사)가 2월 9일(금)부터 11일(주)까지 설립 20주년 기념 부흥회를 갖는다. 강사는 고신일 목사(기둥교회 담임). 또 임직식은 11일 오후 5시에 열리며 임직자는 장로 4명, 안수집사 7명, 권사 7명 등 총 18명이다.

▲문의: (718)343-1593

'미동부 평창올림픽 찬양선교단'이 28일 저녁 연습을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미동부 평창올림픽 찬양선교단' 방한

2월 5-17일, 거리찬양, 축하 순회 연주회 등

오는 2월 5일부터 17일까지 '미동부 평창올림픽 찬양선교단'이 한국 교회와 함께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와 지원을 위한 '한미 솔리스트 앙상블 및 CBSN 올림픽합창단' 전국순회 찬양 연주를 진행한다.

금번 연주여행은 복음의 세계화와 평화적 통일의 기치를 높이는 일에 일익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현장에서 '영어노방전도와 길거리찬양', '평창동계선교올림픽 축하연주회',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전국순회연주'를 실시한다.

미주방문단 출연진은 CBSN(대표 문석진 목사) 올림픽합창단과 워싱턴DC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연주활동을 펼치는 팝페라 가수 로즈장을 비롯해, 제시 유(CBSN합창단 지휘, 목관악기 연주자), 한국의 폴포츠 가수 김태희, 김태군 목사(밀양 별빛성결교회 담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방문 및 연주일정은 다음과 같다.

△강원도 홍천공연(홍천기독교총연합회 주관): 2월 7일 △올림픽 강릉전야제공연(강기총주관): 8일 △영어노방전도 및 길거리찬양: 8-9일 △서울공연 광림교회 장천홀: 10일 △인천공연 인천영생교회: 11일 △울산공연 울산화봉교회: 13일 △밀양공연 밀양별빛교회: 14일.

이번 순회연주회 방문단장은 지난 5월 평창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한민족캠페인 미동부대회 총괄준비위원장으로 대회를 이끌었던 김태수 목사(뉴저지청암교회)가 맡았다. 준비위원으로는 음악감독겸 지휘 유진웅 교수, 고문 김선량 목사, 김영식 목사, 장석진 목사, 장충국 장로, 자문위원 지인식 목사, 문석진 목사로 조직했다.

단장 김태수 목사는 인터뷰를 통해 "이번 미국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탁월한 연주자들로 한미 연합팀을 꾸려서 국가적 큰 행사인 동시에 남북통일에 기여하며, 세계평화를 견인할 평창올림픽을 근접 지원하게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다"며 "전국을 순회연주하며 올림픽참가자들과 한국의 크고 작은 교회를 방문해 함께 찬양하고 전도하는 선교찬양을 하게 돼 가슴 벅차다"고 말했다

매주 화요일 오후 8시와 주일 오후 5시에 올림픽합창단 연습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지휘자 제시유 감독은 "평창동계올림픽 선교찬양 축제와 이번 음악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성사되기를 기원하며 혼신을 다해 찬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강원도목사회(회장 장석진 목사)는 2월 4일(주) 오후 6시 뉴욕평화교회(임병남목사)에서 미동부 평창올림픽 찬양선교단 파송예배를 드린다.

▲문의: (201)574-5720김태수 목사

〈기사제공: CBSN〉

"십자가의 인내를 배우고 사역하라"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 밤, 설교 이영섭 목사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회장 이종태 목사)의 밤이 지난 29일 저녁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지하친교실에서 열렸다.

올해로 12번째 갖는 총동문회 밤에서 회장 이종태 목사(18회, 심령이가난한교회 담임)는 "지난 30년 동안 28회기를 맞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장영춘 학장님과 교수, 동문, 재학생들에게 감사했다.

이종태 목사는 "중년에 접어든 동부개혁신학교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비전을 다지고 도약할 때가 이르렀다"며 "원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그리고 신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정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환영인사를 했다.

리셉션 후 시작된 예배는 부회장 이종원 목사(10회) 인도로 기도 장규준 목사(총무, 18회), 성경봉독 최화숙 전도사(부회장, 14회), 설교 이영섭 목사(볼티모어장로교회 원로), 헌금특송 이재환 전도사(28회), 봉헌기도 손한권 목사(5회), 축사 허윤준 목사(10회), 감사패 증정(전임회장 정기태 목사에게), 신학교 소개 이규본 학감(1회), 동문 선교사 후원금 전달, 광고, 축도 장영춘 학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영섭 목사는 "그리스도의 인내"(약1:2-4)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 시대는 속도와 변화의 시대로, 급변하는 현대의 모든 변화 속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성도는 최종 목표인 천국까지 인내해야 하는데 첫째,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신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며 둘째, 죄인을 참으시는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라"며 "'모든 것은 내 탓'이라 여기며, 이 고통은 나의 믿음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여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사역을 하는 동문과 재학생들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3부 만찬은 김지희 목사(8회)의 식사기도 후 특수사역보고가 있었다.

이날 후원금을 전달받은 채왕규 선교사(13회, 필라 뉴비전청소년센터 대표)와 김지연 선교사(9회, 터키), 김창열 목사(10회, 선한이웃어린이선교회)가 사역보고를 했다. 총동문회는 니카라과 김인선 선교사(에게도 후원금을 보내고 있다.

이날 행사는 이신은 목사(9회)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28회기 총동문회 사업목표는 △신학교 장학금후원(년 2회) △동문 선교사 선교비 후원 △동문주소록 발간 △동문 웹사이트 구축 △신학생과 동문과의 유대강화 등이다.

〈유원정 기자〉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 밤에 참석한 동문들과 교수, 재학생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교협회장 이만호 목사(가운데)가 정순원 부회장(왼쪽)과 김영환 목사(오른쪽)의 손을 잡고 화해의 악수를 시키고 있다.

김영환 목사 '금권선거' 주장 기자회견

뉴욕교협 이만호 회장 "선거개혁 법안 만들겠다"

지난해 10월 열린 44회기 뉴욕교협 총회 선거에서 현 부회장 정순원 목사가 금권부정을 했다며 교협에 조사를 의뢰했던 김영환 목사(당시 부회장 후보)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환 목사는 회견장소에서 성명서를 배부하고 낭독했다.

성명서는 1. 네거티브와 금권부정으로 얼룩진 정기총회, 2. 양심선언과 조사요구, 3. 불공정한 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결정, 4. 교계에 대한 호소와 법적조치 선언 등 4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었다.

김영환 목사는 "신 모 목사가 정순원 목사 지지를 조건으로 교협회비 대납을 지원받았다고 양심선언을 했다. 그래서 교협에 녹취록을 제출하고 조사를 의뢰했으나 편파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뉴욕교협 회장 이만호 목사와 부회장 정순원 목사, 그리고 김영환 목사의 관련 주장을 조사했던 조사위원회 김원기 목사 등이 참가했다.

참석자들은 김영환 목사의 회견 내용을 듣고 자리를 옮겨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다.

주장들이 엇갈리는 가운데, 뉴욕교협 회장 이만호 목사는 "더 이상 분열이 되면 뉴욕교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중재에 적극 나섰으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선거에 대한 혁신을 약속했다.

이만호 목사는 "바로 임원회를 열고 선거개혁을 위한 조치에 들어가겠다"며 "전문성 있는 분들을 위촉해 선거개혁 법안을 만들어 3월 임실행위원회에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기자들에게 중간상황도 브리핑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목사도 "내가 원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 교계가 새로워지고 선거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순원 목사도 같은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이만호 목사는 정기총회 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김영환 목사가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배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영환 목사는 29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확실한 선거개혁을 위한 위원회 등이 만들어질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월 정기 및 시무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하나님이 인도해주신 길로 가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월 정기 및 시무예배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유상열 목사)가 지난 24일 1월 정기 및 시무예배를 드리고 2018년 사역을 시작했다.

오전 10시30분 뉴욕기쁨과영광교회(담임 전희수 목사)에서 드린 1부 예배는 박성원 목사 인도로 기도 권금주 목사, 특송 안경순 목사, 설교 유상열 목사, 합심기도, 축도 정순원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유상열 목사는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었느냐"(렘2:36-37)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모든 생물들은 자신의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사람은 정해진 자신의 길을 바꾸고 살아가곤 한다"며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도해주신 길을 가고 있는가?"고 물었다.

유 목사는 "예레미야 2장을 보면 유다의 죄악의 대한 고발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네 길을 바꾸었다'라는 것"이라며 "길을 바꾸면 첫째, 수치를 당하고 둘째, 형통하지 못하게 된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는데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른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열 목사는 "리빙스턴선교사가 아프리카에 도착해 런던선교회에 잘 도착했다는 편지를 보냈을 때, 선교회는 리빙스턴이 오지에 도달하는 길을 개척해 놓는다면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겠다고 답장했다. 리빙스턴은 만들어진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은 필요 없고 길이 없다고 해도 올 사람이 필요하다는 답을 했다"고 말하고 "길이 없지만 길이 보이는 사람이 위대한 비전의 사람"이라며 "우리는 길이 없을 때 길이신 주님을 만났다. 한 걸음 더 나가 2018년 한해도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마지막 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자"고 말했다.

2부 회무는 유상열 목사 사회로 개회기도, 사역보고 전희수 목사, 회무, 광고 박이스라엘 목사, 폐회기도 이종명 목사, 오찬기도 김영환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사무총장 전희수 목사는 2018년 중심사역으로 △과테말라 선교지 방문(7월중)과 △2018년 후원자의 밤(11월 마지막 주일)에 대해 설명했다.

또 올해는 200명 아동후원을 목표로 현재 진전된 사항을 보고했다.

미동구국제기아대책기구는 현재 콜롬비아와 페루, 코트디부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에 아동후원을 하고 있으며 아동 1명당 후원비는 월 30달러다.

아동후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breadngospel.org)를 방문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담임목사 청빙 공고

시카고 한인교회는 PCA(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소속된 시카고 인근 Hoffman Estates 시에 위치한 교회로 창립 45주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는 교회"가 되고자 힘써온 교회 입니다. 지난 20년을 섬기신 3대 담임 목사님이 북한선교에 전념하기 위하여 사임(조기은퇴)함에 따라 차세대 이민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실 4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자격 요건
-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 하신 분
- 목회경력(Full Time)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
- 한국어와 영어 설교가 가능하신분
- 미국 PCA 교단에 소속되어 있거나, 가입이 가능하신 분
-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실수 있는분

2. 제출 서류
- 본교회 양식 지원서(kcclove.org에서 download)
- 목회 계획서(시카고 한인교회 담임목사로서의 비젼과 계획)
- 목사 안수 증명서 및 최종 졸업(학위) 증명서
- 추천서(2명 이상)
- 자기 소개서 (신앙고백, 목회 경험, 성장 배경, 가족소개, 소명 - letter size 2장 이내)
- 년 이내의 한국어 설교(2편) 및 영어 설교(1편, optional) 동영상

3. 제출 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 Email: kcc.pulpit.app@gmail.com (PDF로 보냄)
- 주소: Korean Church of Chicago, 1500 W. Algonquin Rd, Hoffman Estates, IL 60192, USA Attn: 담임 목사 청빙 위원회

4. 제출 기간
- 2018년 1월 31 일까지(당일 소인까지 유효함)

5.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1차에서 선정된 분은 개별 통지하며, 추가 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 문의는 시카고 한인교회 청빙위원회로 메일해 주시면 됩니다.
  Email: kcc.pulpit.app@gmail.com

시카고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지역교회와 연합, 선교하는 교협으로"

OC교협 기자회견 갖고 2018년 사업계획 발표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이서 목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도 교협은 교회들이 연합해 선교하는 교협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23일 오전 11시 미주비전교회(담임 이서 목사)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에서 이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모여 OC지역 기관장초청 조찬기도회, 삼일절 평화통일기도회, 부활절연합예배, 사모 블레싱나잇, 목회자 영적 대각성 집회, 작은 교회 목회자초청 포럼 등을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C교협 기자간담회에서 회장 이서 목사가 2018년도 교협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서 회장은 "올 한해 교협은 조찬기도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OC지역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로 가꿔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게 하려고 한다"며 "교협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협의회로 이끌겠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 목회자와 성도, 교회들을 비롯해 커뮤니티의 기관들에게도 전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교협은 교회의 본질인 선교에 힘쓰는 교협이 되기 위해 KWMF 사무총장 김정한 선교사가 합류한다. 김정한 선교사는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강소형 선교교회운동과 황금기 선교사 운동을 교협의 사역에 적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선교사는 "교회는 대형교회든 소형교회든 상관없이 선교를 하고자 하는 힘을 갖고 있다"며 "작은 교회도 선교에 참여할 수 있게 교협을 통해 선교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이다.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 선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각 교회 은퇴 장로와 은퇴 권사들의 전문성을 살려 선교지로 연결시켜 나가겠다. 그래서 2018년이 OC교협의 선교모체가 되는 원년이 되게 할 것"이라 말했다.

OC교협은 로스 코요테 컨트리클럽에서 2월 10일 열리는 기관장 조찬기도회에 OC지역 목회자와 교계 지도자는 물론 남가주 지역의 한인 정치인들, 이 지역 한인 교단 관계자들, 타 지역 교회 연합단체장들까지 모두 초청할 계획이다.

이서 회장은 "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도전을 주며 충격을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준호 기자〉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신년축복성회에서 강사로 나선 유재명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주제

은혜한인교회 신년축복성회, 강사 유재명 목사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신년축복성회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미7:7)라는 주제로 25일부터 28일까지 유재명 목사(안산 빛나교회 담임)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개최됐다.

28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 마지막 날 집회에서 유재명 목사는 "우리들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야 한다. 왜 이런 질문 앞에 서야 하는가? 내 안에는 하나님만이 아는 내가 있으며,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담겨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아시고 원하시는 나를 담아두셨기 때문"이라 말했다.

유 목사는 "내가 원하는 나로 살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살 것인지가 충돌할 것이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나로 살게 되면 어느 순간 방황하게 되며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맞춰 살면 또 한번 내 인생의 광야에 서는 나를 보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유 목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요나 역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다"며 "요나는 선지자가 됐고 때가 되면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라는 각오가 있었고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했을 것이다. 하지만 요나의 밑바닥에는 갈 수 없는 니느웨가 있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낸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요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요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씨름이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이 있다. 그것을 위해 결단하는 자들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목사장로부부찬양단 신년하례 및 이,취임예배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엄규서 목사가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엄규서 목사 취임, 강평근 목사 이임

남가주목사장로부부찬양단 신년하례 및 이취임예배

목사부부장로부부찬양단 이취임예배가 22일 저녁 세계아가페선교교회(담임 윤용복 목사)에서 열려 강평근 목사가 이임하고 엄규서 목사(윌셔크리스챤교회 담임)가 신임 단장으로 취임했다.

엄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영혼 구원과 하나님나라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축사는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인 샘 신 목사가 "빛진 자의 삶과 함께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만찬은 현진섭 목사(그루터기선교회 회장)가 섬겼다.

한편 본 찬양단은 1월 28일 오후 5시 미주평안교회에서 남가주장로협의회 초청으로 찬양했으며 2월 1일 저녁 6시 나성영락교회에서 열리는 세계선교교육대회에서 합창으로 섬겼다.

▲문의: 김근수 목사 (323)620-6400

〈기사제공: 남가주목사장로부부찬양단〉

LA총영사관

서부교계 게시판

west

나성금란교회 신년부흥회

나성금란교회(담임 정상용 목사)가 주최하는 신년부흥회가 2월 9일(금)부터 11일(주)까지 열린다. 강사는 주활 목사(콜로라도 그리스도중앙UMC 담임)이며 일정은 9일(금) 오후 7시, 10일(토) 오전 6시, 8시, 오후 7시, 11일(주) 1, 2부 예배.

▲문의: (310)973-5106

OC제일장로교회 영성집회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담임 엄영민 목사) 영성집회가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고전13:11)라는 주제로 2월 9일(금)부터 11일(주)까지 개최된다. 강사는 김상덕 목사(복음장로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9일(금)과 10일(토) 오후 7시, 11일(주) 오전 8시 15분, 10시 30분.

▲문의: (714)891-2029

한인 암생존자와 보호자를 위한 케어

한인 암생존자와 보호자를 위한 케어가 2월 3일(토) 민족학교(900 Crenshaw Blvd, Los Angeles)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0일(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조은교회(700 N. Valley St. #A, Anaheim)에서 열린다.

▲문의: (323)937-3718

달라스연합감리교회 2018년 신년부흥회

달라스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철 목사) 2018년 신년부흥회가 "하나님 마음을 읽는 영성"이란 주제로 2월 2일(금)부터 4일(주)까지 개최된다. 강사는 유재명 목사(안산 빛나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2일(금) 저녁 8시, 3일(토) 새벽 5시, 저녁 8시, 4일(주) 1, 3부 예배.

▲문의: (972)258-0991

나성순복음교회 창립 44주년 및 임직감사예배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는 창립 44주년 및 임직감사예배를 2월 2일(금) 오후 7시30분에 갖는다.

▲문의: (323)913-4499

유니온교회 2018 말씀축제

유니온교회(담임 김신일 목사)는 2018 말씀축제를 2월 2일(금)부터 4일(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유충식 목사(토론토중앙교회).

▲문의: (626)858-8300

단기어학연수 중 방치 미성년학생 10명 귀국 지원

LA총영사관, 연수학교 별도확인 등 꼼꼼준비 당부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은 24일 오후 한국에서 오렌지카운티 어바인 인근 코스타메사(Costa Mesa)로 단기 어학연수를 온 초중고 학생들이 인솔자 잠적으로 방치돼있다는 학부모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김보준 영사 등 LA총영사관 직원 4명은 같은 날 저녁 학생들이 묵고 있는 호텔을 방문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25일 오전 학생 10명(초등학생 4, 중학생 5명, 고등학생 1명)의 귀국을 지원했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해당 학생들은 코스타메사의 모 사립학교에서 4주에서 8주간 정규수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방문했는데, 유학원이 학교에 학비를 지불하지 않아 23일부터 학생들의 수업 참석이 차단된 상태에서 인솔자(유학원 원장)가 24일 새벽부터 잠적하자 한국의 부모들이 총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상기 10명의 귀국 학생 외에 부모가 동행한 11명의 학생들은 아직 귀국하지 않은 상태다. LA총영사관은 자녀의 어학연수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유학원/어학원의 신뢰도, 연수실적, 연수하려는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방과후 및 주말 프로그램 내용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근거를 남겨 놓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LA총영사관〉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714)521-0991, Fax(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Fax.(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213)388-7101 , (F)(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 대학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62)691-0691, (F)(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an.org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Youth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0(월-금)
Tel.(213)481-2779 / Fax(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csca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20
주일2부 예배 : 오전 9:20
주일3부 예배 : 오전 11:20
젊 은 이 예배 : 오후 1:20
영어권 (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1부예배:오전 8:00
주일2부예배:오전 9:30
주일3부예배: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오전 9:30
새 벽 기도회: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저녁 7:30
Tel.(310)719-2244, Fax.(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www.dkp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4:0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www.mpcla.org
Tel.(213)381-2202, Fax.(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5(화-금)
오전 6:00(토)
Tel:(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일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949)854-4010 / E-mail: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LA 복음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 이영성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아동부/중고등부 오전 11:00
청년부 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성경공부(목요일)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Tel.(323)641-0691 / ys2104@hotmail.com / www.Lagumc.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저녁 7:30
금 요 예 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213)245-4090 Fax.(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www.irvinechurch.com
Tel.(949)857-9425 / Fax.(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00(전통)
주일4부예배: 오후 2:00(다민족찬양)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 일 학 교: 오전 11:00
토요점은이예배: 오후 6:00
Tel.(213)384-7274, Fax(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www.gracemi.com
Tel.(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청년)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새 벽 기 도: 오전 5:50(월-토)
성령대망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Fax(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Fax(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jc.org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714)646-9259 Fax.(714)646-9264
16800 Im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rstonetv.com / e-mail:pastor@lacornerstone.com
Tel.(310)530-4040(CH), Fax(310)530-840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장년, 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5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애우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g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JMS 교주 정명석 내달 만기출소

정씨를 재림예수로 추앙…정권 유착 시도 우려

올 들어 교계 안팎에서는 대표적 이단 단체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교주 정명석씨가 다음 달 23일쯤 대전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단 단체들이 활개 치는 상황에서 교주 복귀에 따른 JMS의 반사회적 포교 활동 및 정권 유착 시도 등이 우려되고 있다.

국민일보는 JMS 2인자로 활동하다가 2009년 탈퇴한 김경천(58) 목사를 25일 경기도 안산 상록교회(진용식 목사)에서 만나 JMS의 실체를 들어봤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기사내용이다.

"JMS는 정씨를 하나님의 사람, 재림 예수로 추앙합니다. 정씨를 믿으면 천국에서 최고 높은 곳으로 간다고 믿습니다. 한마디로 종교 중독이죠."

김 목사는 1980년 고려대 무역학과 재학 시절 정씨를 만나 잘못된 성경 비유풀이에 빠지면서 JMS의 수렁에 빠졌다. 30년간 JMS 홍보부장, 교육부장 등을 두루 거치며 '브레인' 역할을 했다. 그는 현재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소속으로 이단 상담을 하면서 상록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다.

김 목사가 JMS에서 탈퇴한 것은 잘못된 교리와 교주의 성적(性的) 문제 때문이다. 그는 "1999년 교주의 성추문 사건 이후 교리가 수시로 바뀌기 시작했다"면서 "교리대로라면 2002년 정씨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모두 해결돼야 했지만 오히려 중국으로 도망갔다가 2007년 공안에 붙잡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JMS에 젊은이, 특히 여대생들이 빠져드는 이유가 문화에 있다고 했다. 김 목사는 "결혼도 하지 않고 정씨를 위해 포교에 뛰어든 처녀들을 '상록수'라고 했는데, 최근엔 '신앙스타'라고 부른다"면서 "지금도 1000여명의 늘씬한 여성들이 대학가 포교에 주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JMS가 재즈댄스와 노래, 스포츠, 모델 활동 등 화려하고 감각적인 문화로 접근한 뒤 인성교육 명목으로 잘못된 교리를 서서히 주입한다"면서 "해외 신도들과 잦은 교류로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정씨는 구속 후 30대 여성인 정조은(본명 김지선)씨를 2인자로 내세워 젊은이 포교에 힘쓰고 있다"면서 "JMS가 교주의 고향인 충남 금산 진산면에 수십만 평의 종교타운을 만들어 놓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 등에 따르면 JMS 신도 수는 한국과 일본, 대만 등 국내외에 1만8000-2만명으로 추정된다.

김 목사는 "한국교회는 이단·사이비 종교단체의 정권 유착 시도에 감시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단·사이비 단체가 온·오프라인을 통한 수십만명 동원능력을 이용해 동성애 등 사회현안과 관련, 문재인정부에 우호적 여론을 형성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JMS는 "정 총재가 다음 달 설 연휴 이후 출소할 예정인데, 신도 강간은 사실과 다르며 억울한 측면이 많다"면서 "김 목사의 주장과 정권 유착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한기총 대표회장선거 처음부터 다시

법원, 선거 실시금지가처분 인용…선관위 재구성 내달말 투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제24대 대표회장 선거를 처음부터 다시 치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이제정)는 30일 전광훈 청교도영성훈련원장이 제출한 '대표회장 선거 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30일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를 실시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는 다음 달 말로 늦춰졌다.

재판부는 "한기총 정관 규정과 대표회장 선출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한기총 소속 교단만이 대표회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단체 추천을 받았던 전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선거 실시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의 핵심 이유는 '단체에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있다'는 것이다.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대표회장 피선거권은 소속 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선거관리규정보다 상위 개념인 한기총 정관에는 '회원은 본회 목적에 동의하는 한국 기독교의 교단과 단체로 한다.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원장은 "이번 판결은 특정 후보를 배제하기 위한 한기총 선관위의 결정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교회 선거문화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대표회장이 돼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류미비 등으로 중도하차한 엄기호 전 대표회장도 출마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후보로 찬반투표를 앞두고 있던 서울 세광중앙교회 김노아씨는 갑작스러운 선거 연기 소식에 당혹스럽다는 표정이다. 김씨 측은 "대표회장 선거 파행은 선관위의 잘못이 크다"면서 "설령 전 원장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가처분 신청이 본안 소송에서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표회장 직무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또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기총 사무실은 '법적 다툼의 소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차라리 잘됐다'는 분위기다. 한 직원은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줄어든 만큼 차분하게 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기총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29회 총회를 개최하고 회의록 채택과 사업보고만 했다. 임기가 종료된 엄 전 대표회장은 회무를 진행하며 "소송으로 한기총 업무가 마비될 수 있으니 최대한 법대로 처리하자"고 당부했다.

241명의 총대는 공동회장 중 최고 연장자인 김창수(79) 대한예수교장로회 보수합동 총회장을 임시 대표회장으로 추대하고 정회했다. 한기총은 선관위를 다시 꾸리고 늦어도 2월 말 선거를 치른다는 계획이다.

예장합신, '동성애 반대' 외치며 거리로

여가부 앞에서 성명서 발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신 총회(총회장 박삼열 목사)는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여성가족부(여가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달 20일 여가부가 발표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내용이 있음을 확인하고 경악하며 이를 규탄한다"며 "여가부가 말하는 성평등은 남녀 간의 양성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변태적 성소수자들을 정당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는 소위 젠더이데올로기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억압하려는 것으로, 국민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리로 나온 예장합신 총회 소속 목회자와 성도 250여명은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하려는 개헌 절대 반대한다' '저출산 양산하는 성평등 정책 폐지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를 진행했다. 현장에서 설교를 한 박삼열 목사는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국경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준선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동성애법 입안자들을 방치하면 기준선이 무너지고 후손들은 슬피 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 뒤 박 목사와 예장합신 동성애대책위원장 심훈진 목사 등은 여가부를 방문해 항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단성 논란에도 김노아 한기총 대표회장 되나

예장합동 이대위 한기총에 '후보로 부적절' 공문 "이단성 간과 안돼"

30일 치러지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를 앞두고 단독후보인 서울 세광중앙교회 당회장 김노아(79)씨에 대한 이단성 의혹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에서 제기됐다. 예장합동은 1만1930여개 교회가 소속된 국내 최대 교단으로 예장통합과 함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주요 교단이다.

예장합동 총회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는 29일 한기총에 보낸 공문에서 "예장합동은 제101회 총회에서 김씨를 연구한 결과 이단성이 있고 102회 총회에서 신학적인 문제들이 분명하게 밝혀질 때까지 예의주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면서 "그런 논란이 되는 인물이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가 된 것은 한국교회를 위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자칫 한국교회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한기총이 한국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대위는 첨부한 '김노아의 이단사상 정리근거 자료'에서 "김씨는 자신을 또 다른 보혜사로 암시하면서 자신이 마치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구세주요 심판자로 각인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가 성경 꿰어 맞추기식 '짝풀이 성경이론'으로 성경해석을 오도하며 곡해하고 있다"면서 "이런 엉터리 성경해석을 교단 차원에서 정리해 교인들이 유혹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의 이단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예장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도 2009년 "김씨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이만희와 유사한 이단사상을 갖고 있다"며 예장합동과 유사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씨 측은 이에 대해 "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예장합동이 연구한 자료는 20년 이상 된 자료이며 2009년 한국교회 앞에 사과문을 발표할 때 폐기처분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당회장이 성경해석에 논란이 되는 부분을 곧바로 시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기총은 30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24대 대표회장 선거를 치른다. 총대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는데 김씨가 단독 후보로 출마했기 때문에 박수로 추대하거나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씨가 만약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찬성표를 얻지 못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을 재공고하고 후보를 다시 접수한다.

EBS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 공식화

학부모시민단체 · 동성애반대교수연합, 건물 앞서 1원짜리 동전 쏟아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과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전국교수연합' 등은 25일 경기도 고양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앞에서 1원짜리 동전 1만개를 쏟아 붓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EBS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을 공식화했다(사진). EBS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전기요금에서 수신료 명목으로 매월 70원씩 징수하고 있다. 1원짜리 동전을 쏟아 부은 것은 시청료 1원도 아깝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인천지역 학부모인 김수진(43)씨는 "EBS가 언제부터 음란방송으로 변질돼 극단적 페미니즘과 동성애, 남성혐오를 가르치게 됐느냐"면서 "다른 방송이 도덕적으로 무너져도 교육방송만큼은 지켜야 한다. EBS를 새롭게 하기 위해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양규 전국교수연합 상임위원도 "교육은 가치관이고 윤리문제인데, EBS가 앞장서서 건전한 가치와 윤리를 무시한 저질방송을 내보낸 것은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도전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학부모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다음 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동성애를 옹호한 EBS의 편향성을 지적할 예정이다.

충기총 '인권조례 폐지' 기도회 열어

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충기총·대표회장 오종설 목사)는 28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삼거리공원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충남도민 시국집회 및 기도회'를 개최했다.

충기총은 성명서에서 "충남인권조례는 각종 동성애 정책을 주장해온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따르도록 돼 있다"면서 "게다가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병역거부 허용, 국가보안법 폐지, 동성애자 우대법 제정, 여학생 낙태시설 강화 등을 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수 도민을 역차별하는 차별금지 조항이 충남도민인권선언에 있는데, 그대로 적용할 경우 잘못된 인권 개념을 학생·도민·공무원 등에게 강제하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안과 아산, 예산군 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하고 '퍼스트 코리아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연합' 등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최만준 천안시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이 설교했다. 충남도민 8만여명은 인권조례안 폐지를 청구하는 주민발의안을 최근 제출했다.

국가조찬기도회에 주한미군지휘부 참석

3월 8일 고양 킨텍스서…반세기만에 처음

올해로 50주년이 되는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회장 채의숭 장로)에 주한미군 지휘부가 최초로 참여한다.

채의숭 장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생겨난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열리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3월 8일 열리는 기도회에는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마이클 빌스 주한 미8군 사령관의 참석이 확정적이다. 기도회가 5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주한미군 측에서 흔쾌히 참석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한·독 국회 친선협회 부회장인 요한네스 셀러 의원과 이스라엘 국회조찬기도회장인 로버트 일라토프 의원, 로버트 두시토고 외무부 장관 등 해외 정계 인사들이 참석한다.

국가조찬기도회 개최 장소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경기도 고양 킨텍스로 바뀐다. 더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자는 취지다. 국회조찬기도회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년에 2000여명이 참석하던 기도회 참석 인원을 5000여명으로 늘렸다"며 "기독교계가 큰 뜻을 모아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내 주요 인사로는 정세균 국회의장 등 정재계 주요 인사들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총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교단 총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장애인과 농어촌·낙도 지역 목회자 등 다양한 교회 구성원이 함께하며 미래세대인 국군장병과 교회 청년, 고등·대학생 등도 1000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2016년에 이어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가 설교한다.

기도회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정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3)는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회개와 사회적 화해, 국가적 통일과 역사적 미래라는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계획이다.

킨텍스에서뿐 아니라 전국 교회와 신학교, 복음공동체들과 해외 한인교회에서도 같은 시간 기도회가 함께 열릴 예정이다. 공동기도문은 "한국교회가 이념의 갈등을 풀어주고 서로의 아픔을 싸매어 주기를 간구한다"며 "형제가 연합해 민족통일을 이루게 하고 수년 내에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 달라"고 쓰였다.

청소년 49%가 결혼 필요성 못 느낀다는데…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부모가 가르치고 모범 보여야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항목에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포함)'는 응답이 49%로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3~24세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5년 전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률(26.9%)에 비해 배 가까이 치솟은 것이다.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문항에선 '그런 편(매우 그러함 포함)'이라는 응답이 46.1%에 달했다. 급변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결혼·가족관은 이미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기독교 가정사역 전문가와 신학자, 목회자들을 통해 바람직한 결혼 및 가족관에 대해 들어봤다.

부모는 자녀 삶의 거울

시대가 변할수록 청소년들이 결혼을 꺼리는 이유는 뭘까. 기독교교육 및 가정사역 전문가들은 청소년보다는 그들이 속한 가정에서 문제점을 찾았다.

신형섭(장신대 기독교교육) 교수는 29일 "기본적으로 요즘 청소년들이 가정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지 못한 것 같다"면서 "자신이 가정에서 합당한 소속감과 사랑, 상호 소통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청소년들이 가정을 소망과 사랑을 키워나가는 공간보다는 불편하거나 상처받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혜련 한국뉴욕주립대 교수는 "부모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왜 결혼하고 싶지 않겠느냐"면서 "우리 부모세대가 건강한 가정의 모델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부모가 곧 자녀 삶의 거울이라는 것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는 개인주의도 지적됐다. 김성묵 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장은 "포스트모더니즘이 거세게 밀려들면서 나타나는 전 세계적인 문화이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결혼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성경에는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것, 나아가 자녀를 출산하고 가정을 이루는 일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1:28)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2:18) 등이 주된 근거다. 다만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경우, 독신 등을 인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신 교수는 "성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결혼이며, 십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성경 또한 가정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상달 가정문화원 이사장은 "결혼은 부족한 사람을 위한 제도이며,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조화를 이뤄가는 종합예술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교회가 결혼 가치관 교육 앞장서야

하지만 많은 젊은이들은 "성경 말씀대로 결혼하고 가족을 꾸리기엔 너무나 힘든 세상"이라고 토로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모와 목회자 등 크리스천 기성세대들의 지속적인 가치관 교육을 강조한다.

전 교수는 "'부부는 동반자'라는 개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내가 모르는 걸 상대방을 통해 배울 수 있음을 깨달을 때 모든 일에 의욕이 생긴다"면서 "이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젊은 가정사역자 양성을 제안했다. 50-60대 사역자보다는 지금 이 세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가정사역자를 키워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송길원 하이패밀리 공동대표는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감안할 때 출산 결혼 양육 보육 환경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교회가 큰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면서 "교회 공간부터 공유개념으로 이 문제에 접근한다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묵 본부장은 "결혼생활에 대한 '혼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해진 교육기관을 통해 결혼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정부가 출산, 주거 등에 있어서 신혼부부 등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선교의 창 (94)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스코필드(Frank William Schofield) 선교사

역사는 장강(長江)처럼 유유히 흐른다. 장강은 바람에 의해 일렁이지만 역사의 물결은 사람에 의해서이다. 오늘 전 세계 약 6만여 한인교회 1,000만 성도 그리고 국력 순위 세계 12권인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수많은 선열들과 선교사들의 희생이 있었다. 여기 그 중에 한 사람 비록 외국인이었지만 한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Frank William Schofield, 1889년 3월 15일-1970년 4월 12일) 박사이다. 그는 현재 국립 현충원 충열대 96호. 애국지사 묘역엔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묻혀 있다. 그 비석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

"내가 죽거든 한국 땅에 묻어주세요, 내가 도와주던 소년, 소녀들과 불쌍한 사람들을 맡아 주세요".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 삶이 흐트러지기 쉽다. 물질문명과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올곧은 신앙을 타협하곤 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앞서간 고인들의 삶과 그 정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고 스코필드 선교사는 어떤 분이었으며 우리에게 도전하는 정신은 무엇인가?

1. 그의 성장배경

그는 1889년 3월 15일에 영국 워릭셔 주(Warwickshire)에서 4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다. 불행하게도 태어나자마자 산욕열로 어머니를 여의었다. 1905년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으나 성적은 좋지 못하였다. 그는 집안이 여의치 않아 진학을 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체셔 주의 한 농장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고용되면서 노동자의 비참한 생활을 보게 되었다.

1907년에는 19세 때 캐나다로 이민하였고 토론토 대학교 온타리오 수의과 대학에 입학했다. 그러나 1910년 대학 2학년 때 소아마비를 앓아 지팡이를 짚게 되었다. 이런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우등생으로 졸업을 했다. 그리고 1911년에는 토론토 대학교에서 수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이 분야의 전문가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는 1913년 9월에 앨리스 스코필드(Alice Schofield)와 결혼했다.

스코필드 박사는 한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다.
그는 일제하에서 고통 받던 한민족과 호흡을 같이했다.
그는 영혼들에게는 비둘기처럼, 불의에 대해서는 호랑이의 모습이었다.

2. 그의 사역 일대기

캐나다의 감리교 선교사이자, 수의학자이며 세균학자였던 스코필드 박사는 1916년 내한했다. 그는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서 세균학과 위생학을 가르쳤다.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본업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며 각계의 한국인들을 만나는 등 우리나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쏟았다. 그는 자신의 한국식 이름도 만들었는데, 바로 '석호필(石虎弼)'이다. 그의 성인 '石'은 그의 종교적 굳은 의지를 의미하고, '虎'는 호랑이, '弼'은 돕는다는 뜻으로, 한국인을 돕겠다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그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그 모습을 사진에 담아 출국하는 선교사의 가방에 넣어 세상에 가장 먼저 알렸다. 그는 소아마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화성군 제암리 학살현장에 자전거를 타고 직접 찾아가 사진을 찍고 주민들의 증언을 기록으로 남겼다. 또 유관순 등 서울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독립운동가들을 면회하고 조선총독부의 고문에 항의하기도 했다. 이런 활동으로 스코필드 박사는 일제에게 눈엣가시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는 마침내 일제로부터 1920년에 추방을 당했다. 캐나다로 돌아간 뒤에도 한국을 잊지 않고 강연과 언론에 기고를 통해 일제의 식민지에 놓인 한국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온타리오대학 교수직을 은퇴한 뒤, 58년 8월 칠순에 국빈 자격으로 한국에 돌아와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1958년부터 1970년까지 12년 동안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보육원 등의 제정지원을 해주고 고아들을 돌보았다. 뿐만 아니라 능력은 있지만 학자금이 없는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었다.

그는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1968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을 받았다. 1970년 4월 12일, 81세를 일기로 서거한 스코필드 박사는 국립 현충원에 묻혔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대한민국의 한 부분으로 영원히 남게 된 것이다.

3. 스코필드 박사에 대한 정운찬 전 총리의 고백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고전 4:15).

스코필드 박사는 한국의 여러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영적 아비로서 역할을 했다.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서울대 총장을 역임했던 정운찬 전 총리이다. 그는 "스코필드가 없었다면 오늘의 정운찬은 없었다(He made me what I am today). 일찍 아버지를 여읜 저에게 스코필드 박사는 친아버지나 다름없었다. 그는 항상 저에게 '약자에게는 비둘기 같은 자애로움으로, 강자에게는 호랑이 같은 엄격함'을 강조하며 건설적 비판정신을 기르라고 말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13세 철부지 소년 시절 1960년 4월 스코필드 박사를 처음 만났다. 70세 노신사와의 만남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 진학을 고민하고 있던 무렵 소년에게 영국 태생의 캐나다인 교수는 장학금을 주며 격려했다.

고등학교 입학 후 3년간 매주 영어로 성경을 가르쳤다. 조금이라도 늦어 변명을 할라치면 또박또박 한국말로 "핑계대지 마시오"라고 꾸짖는 모습은 영락없는 '호랑이 선생님' 같았다.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디딘 것도, 이후 부족함이 많지만 평생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며 산 것도 그와의 약속 때문이었다.

4. 한국 땅에 묻히기를 소원한 선교사

스코필드 박사는 선교사요, 교사요, 의사요, 독립 운동가였다. 우리가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거창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다. 첫째는 생김새와 생활 문화와 의식구조가 다른 그가 우리 한인과 한국을 너무 사랑했다는 것이다. 오죽 사랑했으면 캐나다의 안락한 땅을 포기하고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했을까?

둘째는 교사요, 선교사로서 결코 학원이라는 울타리 안에 안주하지 않았으며 한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일제하에서 신음하는 우리 동포들을 바라보며 이 불의를 세상에 고발하고 하나님께 탄원했다.

셋째는 잠재력이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영적 아비가 되어 뒷바라지를 했다는 것이다. 결국 사람을 키우는 것이 최고의 사역임을 인지한 것이다.

넷째는 크리스천으로서 정직을 앞세운 그의 생활철학이다. 또한 어려운 사람 만나면 비둘기처럼 대하고 의롭지 못한 사람을 대할 때는 호랑이의 날카로움으로 대하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 나아가 그는 국력 신장을 강조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국력이지 국제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일제하에서 나라 잃은 이 민족의 아픔을 생생히 목격했기 때문이다.

맺음 말

스코필드 선교사는 한민족이 역사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대였던 일제치하 시대에 내한했다. 그는 일생을 삶의 철학처럼 비둘기요 한편으로는 호랑이의 모습으로 살아갔다. 그는 어디에 있던 우리 민족을 한량없이 사랑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사명을 감당했다. 이에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3·1운동의 제 34 민족대표라 부른다.

고인은 가셨다. 그 분은 지금도 민족 분단의 한이 서린 한반도에 누워 있다. 이제 후대를 이어가야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빚진 자다. 은혜는 가슴에 새기고 원망은 강물에 떠내려 보내라는 말이 있다. 빚진 자들이 할 일은 주님의 마음으로 보다 책임 있게 사는 것이다. 우리는 고인이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품었던 대한민국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 서 있는 그 나라를 사랑하며 의롭게 살아야 한다. 장차 부끄러움을 당치 않기 위해서..

jrsong007@hanmail.net

선/교/단/신

스물일곱 살 이집트 청년 바심의 신앙

이집트 시나이반도 엘아리시에서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던 바심에게 지난 13일 저녁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점포 문을 닫고 형 오사마, 친구 모하메드와 함께 퇴근길에 올랐다. 길을 걷고 있는데 검은색 재킷을 입고 총을 든 사내 3명이 다가왔다. 남성들은 다짜고짜 바심에게 오른쪽 손목을 보여 달라고 했다.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징표로 오른쪽 손목에 작은 십자가 모양의 문신을 새겨 넣는다.

십자가 모양의 문신을 확인한 그들은 바심에게 크리스천인지 물었다. 답변에 따라 어떤 결과가 뒤따를지 바심은 짐작했을 것이다. 지난해 엘아리시 지역에서 많은 콥트 기독교인이 무슬림 과격분자들에게 연쇄적으로 죽임을 당했다. 이 때문에 다수의 콥트 기독교인 가정이 이집트 북동부에 위치한 이스말리아나 수에즈로 이주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사내들의 질문에 바심은 당당하게 밝혔다. 남성들은 되물었다. 바심은 더 큰 소리로 크리스천임을 밝혔다. 잠시 침묵하던 남성들은 바심의 친구 모하메드와 형 오사마의 손목도 살폈다. 무슬림인 모하메드의 손목에는 콥트교도의 표식이 없었다. 오사마의 손목에는 표식이 있었지만 운 좋게 옷소매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남성들은 총으로 바심의 머리를 겨눴다. 두 발의 총알이 발사됐고 바심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선교 편지 헝가리

Dear, 기도와 주님사랑, 또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 선교후원해 주신 분들께!

안녕하세요?

올 해도, 매끼 밥 먹듯이, 성실하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시편 37:3).

기도와 주님사랑, 또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 선교후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헌금의 미션을 주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셨으니, "주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마24:45)이 되겠습니다.

선교소식과 기도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사진참조).

1. 삼일간 금식기도를 하며, 한 해를 감사하고,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12/28-30일).

저희 교회 전도사 두 분과 몇 동역자들이 함께 성경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피테르 전도사, 임레& 일디코 전도사 부부, 선디, 크리스티나, 에스테르, 클라라, 주저.

2. "거리의 교회" 예배와 급식사역을 통해, 예수님 믿고 새 삶 살게 하소서!

-'허타르 역'(월), '남부역'(화)

3. "요셉 아틸라 고아원"의 아이들, 특히 십대 청소년들이 예수님 믿고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소서!

마약을 하기 위해 훔치고 싸우다 소년원에 4명(16-17살)이 들어가, 저희가 면회를 두 번 다녀왔습니다.

-다니엘, 쥴러, 마르코, 크리스토페르가 그곳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법을 익히게 하소서!

-실베스테르가 만18살 되는 날, 저희 교회에서 생일축하를 해주었습니다(꽃 들고 있는 청소년).

4. "쇼 & 빌라고샤그(소금과빛)개혁교회" 지난주일 예배 후,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집시 커뮤니티가 헝가리에서 건전한 사회일원이 되며, 예수님의 향기요 편지 되게 하소서!

5. "콤플렉스 스쿨"의 10명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각반 학생들에게는 조그만 선물을 전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 각 교실을 돌며, 교사와 학생들에게 복음과 찬양으로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6. "무지개 양로원"도 방문하여 예배와 성찬식을 하였고, 간단한 만들기도 하고, 선물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저희 교회가 위치한 부다페스트 10구역을 중심으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 선교하고 있습니다. 한 두 문장으로 소식과 기도제목을 나누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맞닥뜨리는 기막힌 순간들... 앞에, 주여,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그런 전율로, 선교...에 대해, 가끔씩 선교 article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성실을 식물로 삼겠습니다.

헝가리 흥부선교사, 김흥근&서명희 드림.

mylovehungary@hanmail.net

통일선교 기도소식

하나님이 이루시는 통일을 위해 복음의 정신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Passion, Connected(하나 된 열정)"

강원도 평창에서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 동안 열리는 동계 올림픽의 슬로건이 "Passion. Connected(하나된 열정)"입니다. 이 슬로건을 읽기만 해도 열정으로 연결된 온 세계 사람들이 올림픽에 참가해서 경기하는 멋진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평창올림픽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은 슬로건 때문만이 아닙니다. 올림픽을 통해 화해무드가 계속되고, 남북 간에 고위급 회담과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남북통일로 발전하는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랜 시간 지속된 의심과 갈등이 남북관계와 주변 국가들과의 교류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평창올림픽'이 북한의 선전 전략에 따라 끌려간다고 비판하면서 '평양올림픽'이 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는 다른 관점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회가 남북 간 화해분위기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들이 남북한의 분단의 아픔이 통일로 이어지도록 함께 기원하고 지원하는 올림픽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한과 한반도 주변 국가들 모든 정치인들의 바른 목표를 위해 변화하고 행동하도록 기도합시다. 민족과 나라가 함께 평화롭게 나아가는 상황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평창 올림픽의 표어처럼, 모두가 하나 된 열정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공감을 연결하려고 꿈꾸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서로가 연결되어지기를 열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졌던 인류가 그 분열과 공허함을 극복하려는 몸부림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주인 되고자 했던 잘못된 하나됨의 야망이 실패한 대표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과 범죄로 분열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온 인류가 온전히 하나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여전히 분열을 조장하고, 할 수 있으면 택한 성도들까지 넘어뜨리고자 도전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정신으로 성령님 안에 하나 되고자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마귀의 영은 분열의 영이고, 거룩하신 성령은 예수님 안에 모든 인류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복음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성령님 안에 하나 된 열정으로 통일의 희망,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만들어가도록 다시 시작합시다. 믿음의 기도 불씨들이 모아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한해가 되길 소망합시다. 이 땅의 아픔을 불태우고 참 구원과 자유를 누리는 기쁨과 은혜의 날이 속히 임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성도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성도들입니다.

NIM(North Korea Inland Mission) 대표 임현석 목사 드림

1월 29일 시카고 주은혜교회에서 열린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와 함께 하는 기도제목

평창올림픽의 참가하는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의 힘을 꺾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평창올림픽으로 인해 북한선수단 그리고 삼지연 관현악단 및 예술단에 입국을 두고 남남갈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전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북한 선수단 22명 그리고 코치진 및 임원들이 24명 또한 삼지연 관현악단 및 예술단에 인원이 140여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총 180여명이 평창올림픽으로 인해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누리고 있는 자유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은 한국 사람들이 방문하였을 때 관련된 기사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불안하여 전달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한국은 북한에서 내려온 방문단에 대한 정보와 소식을 가감 없이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자유의 가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180여명의 북한 사람들이 휴전선을 넘어 대한민국 땅을 밟을 때에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한국은 세계 메이저 스포츠 대회 4개를 개최하였는데, 북한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북한 선수단과 코치진 그리고 예술단원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북한의 계몽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아이스하키 선수단에 합류로 인해서 올림픽에 대한 꿈을 접어야 하는 한국 선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부모와 친인척 그리고 친구들의 마음을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희생과 눈물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한반도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심이 아닌 복음의 이타성이 은혜로 대한민국 사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게 되는 평창올림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통일을 이루어주시옵소서"

북한 형제자매들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제발 이 추운 겨울이 얼마나 힘듭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그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이 추운 겨울에 그 생명을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옵소서. 중국과 제 3국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민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서 나를 나오미가 아니라고 말하라고 하며 완전한 절망 속에 있던 그를 생명싸개로 싸셔서 룻을 통해 살리시고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목숨을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3국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민들을 위해 우리를 사용해주시고 우리가 막힌 담을 허무는 자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는 자들이 되도록 하옵소서.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절망과 죽음의 고통에서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을 간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북한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prblessnk@gmail.com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응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벧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오전 6:00(월-토)
Tel.(410)461-1235, Fax.(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아, 유치, 유년예배: 오전 10:45
중,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206)527-0981, Fax.(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seattle.org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702)749-9929, Fax.(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사택.(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월-토)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전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703)941-4447, Fax.(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www.ijkc.org
Tel.(804)560-7500, Fax.(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crc.com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215)927-0630, Fax.(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아리조나 기도원 매매
좋은 환경과 쾌적한 공간에 위치한 아리조나 기도원을 좋은 가격에 매매 합니다.
· 대지 7.3에이커
· 건물 3동 과 예배실
· 피닉스 공항에서 50마일 거리
문의: 623-326-5532

최고의 에제르가 되다 (34)

이희숙 사모

7) 전 인생을 통하여 끊임없이 배우라

여자는 나이가 66세가 되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순간 당신은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늘 생각을 활동적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것을 배워라. '내일이 없을 것같이 오늘을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끊임없이 배우라'고 한 누군가의 말처럼 무엇이든지 부지런히 배워두면 다 도움이 된다.

4. 후원모임(Support Group)을 갖도록 한다.

1) 이웃 교회 목사 부부들과의 모임

목사나 사모는 교회 지도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 중에 어느 특정한 가정과 가깝게 지내는 것은 금물이다. 왜냐하면 성도는 누구나 목사님이나 사모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와 가까운 성도 가정을 시기하게 되고 또 가까이 지내던 가정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때 받는 상처가 피차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 밖의 다른 교회의 목사님이나 사모님들과의 모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자는 목회 사역 중에 남편 목사님과 함께 다른 목사님부부들과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졌다. 서로 교단과 교파는 다르지만 비슷한 연령대에 서로 영적으로 통하는 목사님들과의 모임이었다. 보통 한 달에 한번 모여 식사도 함께 하고 목회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서로 교환하며 서로 격려도 하고 위로와 도전을 주고받는 좋은 지원 모임을 갖게 된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었다.

2) 중보기도 후원자를 확보하라

교회 내에 중보기도 모임을 만들라.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기도 후원자 모임을 가지고 정규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라. 사모에게 막강한 힘을 주며 도움이 된다.

필자는 주일날 모이는 소그룹 성경공부 멤버들과 함께 말씀 공부를 한 후 함께 나누는 시간과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시간에 사모를 위해 구체적인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

3) 전도를 위한 사역팀을 갖도록 하라.

필자는 교회에 주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전도팀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에 전도지와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가지고 한인들이 많이 가는 상점으로 나가 전도하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 전도팀은 매주 토요일 오후에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둘씩 짝을 지어 상점으로 나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와 설교 테이프를 전하며 교회에 나오라고 초청을 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전도대원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벅차서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할 때 우리 심령에 큰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주신다.

만일 섬기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로 좌절과 실망이 온다면 모든 것을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 맡기고 대신 전도를 해보라고 도전하고 싶다. 전도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사모들의 마음에 위로부터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훌륭한 사모가 되는 것은 어느 특정인에게만 정해진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애쓰고 힘쓰면 되는 것이다. 모든 사모는 다 같이 유능한 사모가 될 권한과 자격이 동등하게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 자신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사모는 믿음의 말과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남편 목사의 사역을 위해 끊임없이 간절한 중보기도를 하며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한다.

5. 단기선교여행에 동참하라

만일 섬기는 교회에서 단기 선교여행을 계획하고 목사님이 인솔해 간다면 사모도 함께 선교 여행에 참여하기 바란다.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서 직접 선교 상황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선교에 대한 새로운 비전도 갖게 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남편 목사님이 선교지를 방문할 때 그리고 은퇴 후에 목사님과 러시아, 아프리카를 비롯해 거의 20개국을 다녀왔다. 그러면서 먼저 나 자신이 선교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열방을 품고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선교의 중요성과 지원이 필요한 선교지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며 적은 액수라도 선교헌금을 후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선교할 수 있도록 재정도 채워주신다.

목사님들이라면 목회에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목회라고 하면 자체 교회가 있고, 교인수가 많으며 헌금이 많이 나오고 목사님이 사례를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목회의 성공여부를 그렇게만 평가할 수 없다고 본다.

승리하는 성공적인 목회자는 누구인가?

목사님과 에제르 사모님이 서로 사랑과 신뢰 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쁨으로 사역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목회자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확실한 사명을 가지고 사랑과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목회자이다.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가 성장한 후에 교만해 진다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기도와 영적 무장에 게을리 하다가 마귀의 올무(이성 문제, 돈 문제, 명예 등)에 걸려 넘어져 비참하게 교회를 떠나는 아픔을 겪는 목회자가 의외로 많다.

요즈음은 '목회자가 섬기던 교회에서 마지막에 은퇴식만 제대로 하고 목회를 마쳐도 승리한 성공적인 목회자'라고 한다. 왜냐하면 특히 이민 교회에서는 많은 목회자들이 죽어라고 목회에 전념하여 교회를 성장시킨 후에 많은 문제에 휩싸여 중간에 목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필자가 바리기는 그동안 미주크리스천신문을 통해 게재된 '최고의 에제르' 책이 사모님들에게 사랑하는 남편 목사님들의 훌륭한 '에제르'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한 지침서로 활용되기 바란다. 또한 남편 목사들이 끝까지 승리하는 성공적인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한다.

훌륭한 사모가 되는 것은 어느 특정인에게만 정해진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애쓰고 힘쓰면 되는 것이다. 모든 사모는 다 같이 유능한 사모가 될 권한과 자격이 동등하게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 자신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사모는 믿음의 말과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남편 목사의 사역을 위해 끊임없이 간절한 중보기도를 하며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한다. 훌륭한 '에제르'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남편 목사에게 인정받고 칭찬과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사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보자!!!

〈끝〉

hslee39@sbcglobal.net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하나님은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삼하22:33)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견고한 요새가 돼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경건하고 거룩한 길로 인도해주십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길로 인도하시니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시119:9-16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삶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바위가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바르게 인도해주실 것입니다.

화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삼하22:34)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민첩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34절 "사슴의 발"은 적을 추격하고 적에게 승리할 때 민첩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상시에는 평강가운데 다니다가 대적들이 나타나면 아주 민첩하게 하셔서 적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고 했는데 "형통, 존귀, 칭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늘 하나님께 피했더니 날이 갈수록 그의 인생이 형통해지고 존귀해지고 존경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경건하고 거룩해지고 순결해지며 우리 인생도 승리하게 되고 우리가 형통한 축복을 받고 존귀한 사람이 되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삼하22:35)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내 팔이 놋활을 당기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35절).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다"(라마드)는 "단련시키다, 익숙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길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단련시키셔서 놋활을 당기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을 되돌아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천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고 무슨 일이든지 익숙케하셔서 그를 큰 능력의 장군이요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음을 깨닫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목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삼하22:36)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에게는 끝까지 돌봐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36절에 "구원"이란 "승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격할 때도 암사슴의 발같이 민첩하게 뛰어가게 하시더니 위험할 때는 방패가 돼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특별히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는 것은 정말 감격스러운 간증입니다. "주의 온유함" 때문에 내가 위대하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많이 참아주시고 많이 관대하게 대하시고 많이 기다려주셔서 결국은 나를 크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덮어주시고 기다려주셔서 큰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금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삼하22:37-39)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넓은 길(37절)이란 "모든 장애물이 제거된 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수도 없이 많은 함정이 있고 장애물이 있는 위험한 길을 걸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넓은 길 위험하지 않은 길 방해물이 제거된 안전한 길로 가게 하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은 원수를 완전히 끝까지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칠 때도 수많은 위험을 만났습니다(38-39). 그러나 그 때마다 다윗은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고 그 짐승들을 때려잡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토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멸하였사오며(삼하22:38-41)

다윗은 괴물 같은 골리앗을 쳐부순 이래 그의 평생에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특별히 블레셋과는 수도 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수많은 대적들을 연속적으로 격파하고 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대적을 완전히 무찌르기 전에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충분한 힘과 용기가 넘쳐났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 싸우다가 끝에 가서 힘이 빠져서 져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싸워 이기게 하시니 정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지나갈 때는 적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한 번 격파된 대적들이 더 이상 다윗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39절). 이것이 모두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02)525-7767, HP.(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도 8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밤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82)2-490-7000, Fax.(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본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031)977-8383~9, Fax.(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86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신시 수지국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82)2-998-9988, Fax.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3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
Tel.(82)2-2643-8553~4, Fax.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82)32-568-0191, Fax.(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37 번지

시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031)253-1004, Fax.(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7:30
주일2부예배: 오전9:30
주일3부예배: 오전11:00
주일4부예배: 오후12:50
주일찬양예배: 오후3:00
새벽기도회: 오전5:00/6:00
Tel:(02)418-0481 Fax:(02)422-0751
서울시 송파구백제고분로 17길 29(잠실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3142-6080, Fax.(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www.eshinchon.org

안암 제일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82)2-926-4508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시로3길 50-1
www.anamjeil.or.kr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055)210-5500, Fax.(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양로 415
www.yangko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길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02)942-6881, Fax.(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4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482-3536, Fax.(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043)275-9191, Fax.(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세계기독언론인협회 독후감 공모전-장려상(2)

김진해 장로
(브라질 쌍빠울로연합교회)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유석경 지음)

전, 1971년 11월 21일에 부모님을 따라 브라질로 이민 갔습니다. 도착한 그 주일에 교회를 처음 갔고 그 후로 점차 하나님을 알아갔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계속 교회 뜰 안에서 생활해왔고 이제 성인이 되어 슬하에 딸 셋과 첫 손자를 둔 할아버지 장로로서 인생의 후반전을 멋지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46년의 신앙생활을 통해 믿는 삼위일체에 대해 알건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금년 6월까지.

교회 목사님과 LA를 방문 중 위에 책을 구입했고 부담 없이 한 장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왜 이토록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 나의 마음을 씁쓸하게 할까. 내가 사는 브라질 아마존에서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꽤 많이 들었었어도 왜 이 책은 나에게 부담을 줄까 라는 의문 속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고)유석경 선교사님의 과감하고 당당한 표현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인지 궁금하고 솔직히 나에게 시기심까지 불어놓았습니다. 그거야 뭐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셨으니 당연히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지시고 가시면서 맺힌 한을 풀으시는 거겠지... 하면서입니다.

유 선교사님이 12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달리는 버스 안에서 흘리신 눈물은 나 자신이 쉽게 생각했던 그 상황의 결과가 아닌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화끈했다가 금방 꺼져가는 불꽃 장난이 아닌 꾸준하면서도 계속 부풀어오는 뚜렷한 헌신의 모습이 그의 말과 행동에 젖어왔음을 느꼈습니다.

다양한 헌신의 모습 중 그래도 버젓이 남 눈에 띄고 이왕이면 제 직명단 첫 페이지에 나의 이름 세 글자가 새겨졌으면 어떨까 하는 속셈을 넘어 예수님을 모르는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쩜 제일 핵심이면서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임명을 당연하듯이 말하는 선교사님이 점점 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지, 나와 남들은 슬그머니 숫한 핑계로 피하는데 이 선교사님은 이토록 열정이신데 한평생 우리나라의 사도 바울로 명성을 떨치시겠지.

이게 무슨 날벼락!

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우리 인간이 감히 추측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그 분만의 성품인 것을. 그러나 왜 하필 바로 이 때, 지금 막 시작하시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 쏟으실 때 이런 최악의 병을 허락하셨을까.

아니, 유 선교사님은 우리 인간의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주님은 우리의 행복을 우리 자신보다 더 원하시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나 자신보다 더 아파하신다는 걸,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의 암을 감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아무리 그래도 인간인 피조물이 어떻게 이 세상이 증오하는 병을 놓고 감사하나. 맞다, 우리 모두가 흔히 말하는 피조물이기에 가능하구나. 먼저 나의 확실한 신분이 밝혀지니 복잡하게 보였던 모자이크 조각들이 들어맞아집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장로인 나, 할아버지인 나, 남편인 나, 아버지인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컫는 나.

유석경 선교사님은 자신 안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이 능력이야말로 세상이 선호하고 끊임없이 외치는 외모의 능력, 재물의 능력, 지식의 능력, 학벌, 집안, 인맥...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있다고 말씀하신다. 홍해를 가르고, 귀신을 쫓고, 앉은뱅이를 일으키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무엇보다 전능하신 신이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오신 그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 벌써 존재한다고 확신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모르고 세상의 압력에 고개 숙여 마지못해 소리죽여 고백하는 나 자신부터가 정말 한심합니다. 이 우주만물을 지으시고 생명과 죽음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왜 이제껏 몰랐을까. 이 능력을 발휘하며 나의 삶을 펼칠 때 무엇이 두렵고 나를 막을 수 있을까 할 때 내 안에, 나만의 것인 자유의지를 유선교사님이 경고하신다.

몇십 년의 교회사역 동안 뿌린 돈, 시간, 피땀이면 이 정도의 자유는 내 맘대로 쓸 권리가 없을까라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남들은 나보고 성실하다, 착하다, 이만하면 괜찮다고 말들 하는데 이까짓 자유는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장담하고 살아왔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렇지 않다, 당신이 자유의지를 발휘하는 이내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 선교사님은 이 능력에 힘입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암세포 제거 수술을 안 받겠다고 주위의 거센 제의를 거절하셨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 제자들의 충고도 사양하셨습니다. 죽음 앞에 황당해 발버둥치는 발작이 아닌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자신의 행복을 그 누구보다 더 원하시는 사랑의 근본이신 창조주 아버지께 온전히 존재 전부를 받치신 선교사님의 고백이셨습니다. 누가 생명을 포기하겠습니까, 더더욱 활짝 펴진 주님의 길을 걷겠다고 맹세한, 이래 봐도 서울대 실력가를 그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은 막으셨습니다.

막으시고 새로운 소망을 그 마음에 심으셨습니다. 앉으시며, 침대에 누우셔서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의 제의에 순종하며 마지막 생을 마감도록 결정하셨습니다. 한 학기를 앞두고 시작된 육체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두고 암을 추복으로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신뢰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왜 라는 질문보다 아멘, 아멘으로 절벽 끝에서 손을 놓아야 된다고 고백하며 본인의 생명까지도 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손수 지으신 인간과 친밀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세상에서나 영생의 천국에서 반드시 함께 동거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셨기에 암을 축복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왜 나 자신은 유 선교사님의 고백과 간증이 그 분의 얼마 남지 않은 생애 때문이라고만 생각할까 고민하면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적용해보려고 가정해봤다. 저자처럼 나의 전부를 내놓을까, 행복하다고 외칠 수 있을까, 소망이 있다고 확신할까,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말할까, 아니 만약 나의 신분을 발견했다면 우선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각오했는지 잠잠히 묵상해봅니다.

꼭 그것이 병이든, 실패든, 실망이든 아니면 곧 다가올 죽음이든.... 어쩜 현재 나의 평범한 삶이 내 십자가를 나에게서 더 멀리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에겐 십자가는 그저 아픔이요, 피, 채찍, 수치, 멸시, 버림...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고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십자가는 3일 후 부활의 능력을 발휘하며 모든 고통과 죽음까지도 완전히 이기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니 하나님의 상속자란 권세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언제부터 시작할까. 내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행복의 비결까지 얻었다면, 그래서 십자가까지 거뜬히 짊어질 준비까지 끝냈다면 어느 시점부터 시작종을 울려야 될까...아직 나에겐 시집안간 딸이 둘이나 있다. 둘째는 변호사자격증까지 있으면서 신학교를 졸업해 모 교회에서 전도사의 길을 시작했고, 막내는 일류대학을 졸업해 은행에서 열심히 일한다. 보기에도 너무들 기특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 4, 5만 명인 좁은 한인사회에서 그래도 명목이 장로인데, 딸들에게 보기 좋고 웬만한 결혼을 기대하고 싶다. 세상이 말하는 그것 다 빼고 그나마 최소한의 식은 베풀고 싶다.

지금까지 우리 가족에게 이만큼의 축복을 내리셨다면 어느 정도 시간을 끌어도 될 것 같다. 둘 다 결혼하고, 아이 셋만 낳고 남에게 꿀리지 않을 정도만 살면, 그땐 기필코 다 내놓고, 내 십자가를 들겠다. 나와 내 와이프는 상관 안해도 우리 딸아이들만큼은 하나님께 고집부리고 싶다.

유석경 선교사님은 살아 숨쉬는 이유부터가 전도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 모두는 깨끗케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벌써 그의 소유라 하신다. 진정 예수님의 소유라면 그 분의 뜻과 행하시고 명하신 말씀을 실행해야한다고 하신다. 언제부터... 숨 쉬는 동안. 그렇다. 내가 뭘 따지고, 흥정하고, 요구하고, 협상하고 제의하겠는가. 구약 때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동거하시겠다면, 굳이 그 분의 원을 못할 바 있겠는가. 숨을 연장시킬 때 본인과 그 가족들의 본뜻은 무엇일까.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해 훗날 주님 앞에 서서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지 부담반 기대반이다. 다만, 최소한 왜 그랬어야만 됐는지 선교사님의 본으로 체크해본다.

지금 내 이 나이에 몇 명이나 더 전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유 선교사님은 몇 명을 하나님 앞에 전도하셨는지 궁금해 했다. 여러 교회에서 간증과 설교, 강의를 통해 전파하셨고 지구촌교회 창립멤버이셨으면 꽤 많으셨을 거다. 근데, 아니 지금 장로인 나도 새롭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지 않은가. 영접은 했지만 밋밋한 신앙생활로 벌써 따놓은 천국티켓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본다.

유 선교사님의 생애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믿음의 삶을 12살로 짚어본다면, 나는 정 반대로 살펴보고 싶다. 40여 년간의 짧고도 임팩트 한 삶의 마지막 2016년 3월 4일이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이 이미 태어나시기도 전의 순간까지 모든 걸 통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말이다. 얼핏,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개념을 감히 비교하면서 원인과 결과를 나름대로 그려본다. 다만, 이제부턴 그렇게 복잡하게 살지 않겠다. 그냥 단순히 살고 있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슴 펴고, 떳떳이 하나님의 능력의 소유자로 감사하며 기쁘게 살겠다.

나의 주위엔 많은 성도들의 탄식과 불만이 계속 터져 나온다. 나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그 누가 감히 소리쳐 하나님을 불평할 수 있겠는가, 누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하나님이 원하셨다고 할 수 있나, 누가 이 힘든 상황에 감사꺼리가 있겠냐고 말할 수 있겠나. 그럴 수 없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찬양하겠다. 유석경 선교사님이 부러운 것보다 선교사님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tiolekim@gmail.com
peterbhjung@gmail.com

〈5면에서 계속〉

9. 자기관리를 못하는 목회자

여러 역할이나 책임과 함께 목회자는 자기 자신과 일정, 가족을 잘 관리해야 한다. 자기관리를 못하는 목회자는 시작한 일을 못 끝내거나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목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디모데의 성격을 설명할 때, 특히나 가족과 관련해, 세 번이나 관리능력을 언급했다. 왜 그랬을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딤전3:5).

10. 게으른 목회자

많은 목회자 특히나 작은 교회의 목회자는 제한된 감독 아래 유연한 일정을 좋아한다. 이런 조합은 잘 감독하지 않으면 게으름으로 빠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죄를 일으킬 수 있다. 양떼를 함부로 몰고, 돈 관리를 소홀히 하고, 성경공부에 게을리하면 스스로를 다치게 할 수 있고 결국 양떼를 다치게 할 수 있다. 목양에 열정을 가지고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롬12:8).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벧전5:2).

목회자는 앞 10가지 유혹에 다 넘어지지 않도록 뭐든지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 받아, 기도하며 하나님께 계속 헌신해야 한다. 믿음으로 지지해주며 마음을 열어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함께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옆에 둬야 한다. 하나님께 구원해주신 것과 우리에게 주신 가족과 목회에 감사해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요15:4-5).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엡3:20)" 하여 노력한 것을 키워주신다.

이 글로 깨우친 것이 있다면, 무릎으로 꿇고, 주님께 삶과 목회를 더 전심으로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과 가르침을 구하도록 하자.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목회를 영원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순간이다.